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체계*

김 지 흥

— 차례 —

- | | |
|-----------|----------|
| 1. 들머리 | 3. 종결어미의 |
| 2. 선어말어미의 | 하위범주와 짜임 |
| 하위범주와 짜임 | 4. 마무리 |

(버리)

이 글은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들에 대한 틀을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제주 방언은 상대적으로 다른 방언보다 고립된 기간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자족적이며 독립적인 모습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작업 가정을 여기서는 관련된 여섯 가지 도표로 명시해 놓았다. 선어말어미들의 짜임으로, 먼저 대우 층위가 다뤄지고, 다음 시상 층위와 양태(청자 경험 가능성 여부) 층위가 다뤄졌다. 이 방언의 청자 대우 표현 방식은 종래 3분 또는 4분 체계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식성 및 격식성 여부에 따라 엄격히 4분 체계로 나뉘어야 한다. 각 항에 따른 고유 형식들의 존재가 4분 체계의 정합성을 잘 드러내며, 이는 <도표 1>과 <도표 2>로 요약되었다. 종결어미의 짜임도 앞의 대우 방식에 따라 청자 대우와 평대라는 두 계열로 가지런히 기술된다. 비록 지금까지 사뭇 복잡다단하게 종결어미들이 나열되어 왔지만, 무엇보다도 개별 사례들을 나누는 큰 틀로서 전형적 형태들 및 복합 형태로 된 유표적 형태들로 기술되어야 함을 밝혔다. 전자는 <도표 3>으로 요약된다. 후자는 다시 세 가지로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 <도표 4>로 요약된 융합 형식이다, 둘째, <도표 5>로 요약된 관형형어미와 형식 명사를 갖는 부류와 명사형 구성을 갖는 부류이다. 셋째, <도표 6>으로 요약된 다른 비종결어미들로부터 전성되어 쓰이는 부류

* 이 연구는 2013년도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따른 결과임(경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2013-08).

들이다. 통일성이나 심층의 원리를 밝히지 못한 채 사뭇 난삽하게 제시된 이 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들은, 이런 틀에 따라 유기적으로 간략한 틀로 기술되고, 그 틀을 나누는 원리에 따라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유표적 종결어미들에 관련되는 범주들에 대한 상위 진술은 한국어의 방언들뿐만 아니라, 인접 언어들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다.

주제어: 대우 층위를 나누는 자질, 공식성 및 격식성 여부, 청자 대우 종결어미와 평대 종결어미, 전형적 부류와 유표적 부류의 종결어미, 융합 형식, 명사 관련 부류, 전성 부류.

1. 들머리**

** 필자의 모자란 생각을 정밀히 읽고서 유익한 비판을 주신 세 분의 심사 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 방언이 2010년 유네스코에 의해 ‘소멸 위기’의 언어로 지정되면서(양 창용·양 세정 2013), 작금에 이 방언을 마치 일본어나 유구어처럼 한국어와는 다른 ‘별개의 언어’인 듯이 왜곡하는 ‘소가 옷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어’라는 잘못된 용어를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조례’에다 그대로 집어넣었다. 제주도라는 부속 도서가 만일 ‘제주민국’으로 독립했었다라면(독립국 조건),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별종의 사람이었다라면(별개의 민족 조건), ‘제주어’라고 불러도 상관없었겠지만, 두 조건이 모두 조금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어’로 부르는 일은,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에 다름 아니며, 1898년 3월 20일 제주 삼읍의 호적과 토지대장을 일본에 바치려던 매국노 방 성칠(房星七) 무리를 연상시킨다(김 봉옥, 2013, 『제주 통사』, 제주발전연구원).

이 방언(Jeju Korean, 여러모로 고민한 끝에 선택한 영어 용어임)의 모어 화자로서, 그 연구가 이미 1백년이나 되었다고 하나, 필자는 이런 부당하고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아 줄 변변한 학술 저서가 고작 몇 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후핵성 언어로서의 교착어 특성을 중심으로 계층성 및 융합성에 초점을 모으고 ‘담화 전개’ 전략을 고려하면서, 왜곡된 주장들에 맞서기 위하여 김 지홍(2014 b)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기능범주들의 분석과 설명에 주력하였다. 그 결론은 전폭적으로 한국어 형태소와 구조들을 이용하면서 이 방언에서 특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뻔하고 엄연한 사실의 재확인이었다. 제주 방언은 한국어일 뿐이며, 한국어(더 나아가 장벽에 부딪힌 알타이 어군까지)를 새롭게 논의

제주 방언(이하에서는 ‘이 방언’으로 부름)에¹⁾ 대한 전사 기록물은, 최근에 발간된 것을 제외하면 전해 오는 것이 전혀 없다. 오직 입으로 주고받는 발화 형태로만 기억되고 활용되며 전승되어 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5세기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에 ‘변방의 비야한 말’(邊野之語)까지도 소리를 적도록 의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언은 그런 혜택을 전혀 누려보지 못한 셈이다. 좀

할 수 있는 결정적 성격들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중요한 언어재이다. 더 더구나 한국어의 통시적 좌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언어 사실들을 품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드러낼 ‘밝은 눈’이 필요한 것이다. 가려워야 굽는다 하지 않던가(itch then scratch)! 이 방언을 서술하는 개념들이 올바로 서야 비로소 진면목(그리고 한국어의 하부구조)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런 논의의 일부로서(부정적으로는, 필자의 편견 속에만 갇힌 채)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짜임새를 다루었지만, 심사위원들의 지적처럼 방대한 주제를 무모하게 단정적으로만 서술한 측면이 적잖음을 시인한다. 세 분의 지적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뉘는데, 공통어로서 한국어와 다른 특징을 구현하는 ‘대우·시상·융합’ 논제와 관련되어 있다. 독특한 이 방언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런 주제가 모두 단행본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를 다시 절감한다. 여기서는 그분들의 지적을 관련 대목들에다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각주 형식으로 필자의 답변을 적어두거나, 문제점의 해결을 일후 과제로 적어 둔다. 필자의 교수 생활 30년 동안 처음 받아본 5쪽 분량(총 17항목의 비판과 질문)이나 되는 그분들의 치밀한 문제점 지적은, 앞으로 필자가 모여 방언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거듭 고마움을 적어 둔다.

- 1) 필자가 모여 방언으로서 이 방언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방언과의 직접적인 간섭을 가장 덜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측면이 새로운 한국어 문법 질서를 드러내는 데에 양질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도 이 방언의 통사 행태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이 방언을 전반적으로 기술해 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이 방언의 실상을 살살이 낱낱이 몇 가지 층위들의 전이 모습까지 전면적으로 모두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대략 30년을 주기로 잡는 공시태의 자료들 속에도 엄연히 이전 시기의 통시적 자료들이 크든 작든 맞물려 담화 자료 속에 들어 있기 마련이다. 아마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다 만족시키려면, 여러 연구자들의 공동 토론 마당이 자주 열려야 하고, 상당한 분량의 독립된 책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더 실상을 정확히 기술한다면, 유람객이나 목민관이나 유배객의 인상적인 한두 줄의 지적을 제외한다면, 이 방언의 발화를 글로 적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나 집단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담화 연구의 시각에서 보면, 비록 ‘글자’가 기억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특정 집단을 스스로 다른 집단과 구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글자를 이용하여 일관된 속성을 띠고 쓰여진 ‘덩잇글’은 인쇄 문명의 확산과 더불어 독자적 질서를 지니며, 1차적으로 읽을 사람을 전제로 하여 쓰여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 문화 속에 전해져 오는 기록들은 음으로 양으로 가치와 이념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 방언을 매개로 하여 이뤄졌던 문화는 전혀 주류 속에 들어 있지 않고, 주변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치부되고 무시되거나 배제되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기록될 가치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개별성과 이질성이 백안시되던 당시의 이념 체계 속에서는 실재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없는 듯이 관념되었거나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을 법하다.

제주 방언에 대한 자각은 입말 중심의 언어학을 세운 소쉬르의 영향력 때문에 생겨났으며, 광복이 되고 나서 이뤄진 본격적인 이 방언의 기술에서는 그 가치를 한국어의 역사적 측면과 연관 지으려는 노력이 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방언의 특이성에만 몰입하여 그 가치를 한국어에서는 찾아지지 않고 오직 이 방언에서만 찾아지는 유일한 내용을 크게 부각시키려고 온힘을 쏟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논의는 성급히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

이 방언을 언어학적 측면으로 가치를 드러내려는 연구가 이미 1백 년이 넘었다(고 동호 외 2014). 오늘날의 언어학도 크게 발전하

여, 언어 사용 및 담화를 거쳐 인지 작용과 맞물려 비로소 통합적인 시각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이 방언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 또한 편협하게 특정 언어학의 사조를 옹호하여 거기에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총체적으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방언은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방언들에 의한 간섭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방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경우에 획기적인 틀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특히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들을 중심으로 하여 종전의 한국어 및 일반 언어학의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줄 수 있는지를 놓고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선어말어미의 하위범주와 짜임

시간상의 흐름을 일직선으로 표현할 경우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공기 흐름인 발화나 글자들의 배열인 문장의 줄 위에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언어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어미는 선어말어미이다. 생성문법에서는 언어를 크게 어휘범주와 기능범주로 나누는데, 전자는 사건의 내적 구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후자는 화자가 한 사건을 파악하는 방식과 청자에게 관련 사건을 제안하는 일을 한다. 사건의 내적 구성은 관찰된 사건의 전개 방식을 인간이 유전체로 발현되어 공유한 범주를 가동시켜 사건의 유형들을 상징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다. 최근에 이는 논항구조 또는 사건구조로 불리며, 철두철미 ‘관념론’의 산물이다. 생성문법에서는 어휘범주를 거느리는 핵어(head)로서 기능범주를 크게 종결에 관여하는 요소와 시간에 관여하는 요소로 나누고, 후자에서 다시 시제 및 일치에 관여하는 요소를 나눠 놓았다. 만일 이런 계층 구분이 보편

적이라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 방언에서도 동일한 계층을 따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1. 외부 논항에 대우 일치를 부여하는 핵어의 존재 여부

교착어의 질서 위에 문법요소들이 실현되는 우리말에서 맨 처음 마주치는 선어말어미는 대우 일치에 관련된 요소이다. 대우 일치소는 서구 언어의 ‘성·수’ 일치소에 대응된다. 서구에서는 문법적인 성(본디 ‘종류, 갈래’의 의미였음)과 대상의 숫자에 따라 필수적 일치를 구현해 놓지만, 우리말에서는 신분이나 나이에 따라 대우 여부를 수의적 일치소로 구현해 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언어들 간에서 관찰되는 일치 기능의 차이를 매개인자로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대우 일치소라고 하더라도 15세기 한국어 자료와 현대 한국어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현대 한국어와 이 방언의 질서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세 개의 논항을 지닌 사건 구성에서, 제일 층위가 높은 논항은 주격을 받는다. 주격을 부여 받는 기체에 대하여 서로 배타적인 두 가지 가정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주격(또는 주어)이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값의 구성을 따르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핵어로 부터 일치가 주어진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더 전문 용어로 표현하여 외부 논항은 일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치소의 역할은 나머지 두 개의 논항(내부 논항)을 주격을 받는 논항(외부 논항)으로부터 구분해 주기 위해 생겨났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내부 논항인 대격 또는 사격 논항에만 일치 표시를 부여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생성문법에서 시체소(T)가 주격을 부여한다는 논리이다. 이 가정의 강점은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대격에 대우 일치를 부여하는 형태소 ‘오’(변이형태로 ‘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안정성을 잃고서 왜 급격히 사라져

버렸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설명력도 지니지 못한다.

다른 가정은 일치 기제가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을 구분해 주기 위한 언어 장치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계열의 논항을 구분해 주기 위하여 일치 표시를 배타적으로 어느 하나에만 부여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외부 논항인 주어에 대우 표시를 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으시-’라는 일치소 핵어에 의해서 주격 형태소 ‘-가’가 ‘-께서’로 바뀐다. 그런데 줄곧 이 방언에서는 ‘-으시-’라는 대우 일치소가 특정 계층의 사회방언이며, 다른 하위방언에서는 이런 핵어가 실현되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런 지적은 대우 일치소에 지배를 받고 부여되는 대우 형태의 주격 ‘-께서’가²⁾ 관찰되지 않는다는 조사 보고를 뒷받침해

2) 국어학계에서는 ‘-께서’가 근대 국어의 자료로부터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 웅(1989 : 72)에서는 처격을 나타내던 것이 주격으로 바뀐 것으로 보았다(16세기 추정 무덤 편지 자료를 인용함). 홍 운표(1994 : 626쪽 이하)에서는 17세기 문헌에서부터 탈격(~으로부터)이 주격으로 바뀐 것으로 보았고, 18세기에 들어서면 ‘-겨오셔, -께옵셔’의 형태도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외부 논항의 대우를 부여해 주는 방식이 근대 국어에 와서야 확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대우 일치소의 핵어(head)는 6세기 신라 노래에서부터 관찰할 수 있다. 15세기 자료에서 관찰되는 ‘-으시-~-으샤-’에 대응하는 ‘줄사(賜)가 22군데 나오고, 사(史)와 교(敎), 『유서 필지』에 ‘이시’로 읽고, 이를 ‘敎是’로도 썼음)도 같은 형태소의 다른 표기로 보기도 하는데, 자세한 논의는 김 완진(2000 : 213쪽 이하, 246쪽 이하)를 보기 바란다. 단, ‘-으샤-’는 소수 연구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복합 형태로 본다. 즉, 선어말어미 ‘-오-’ 또는 부사형 어미 ‘-아’와 결합된 결과라고 여기는 것이다. 한국어의 역사 자료에서는 일찍부터 일치소의 핵어(head)는 있었지만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 형태소 ‘-께서’는 근세 국어에 들어서야 뒤늦게 나왔으므로, 핵어 및 지배된 형태 사이에 서로 불일치를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의 지적과 관련하여, 이 방언의 대우 체계가 공통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음을 밝힌다. 공통어에서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함께 쓰인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는 오직 다른 사람을 높이는 하나의 축만이 우세하며, 오직 표준어 내지 공통어

준다(핵어로서 ‘-으시-’도 없고, 이 핵어에 지배되어 있음을 표시해 주는 ‘-께서’도 없음).

만일 외부 논항을 지배하는 핵어 ‘-으시-’도 존재하지 않음이 사실이라면, 다른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문법상 표시되는 제약을 왜 이 방언에서만 따르지 않는 것일까? 굳이 일반 제약이나 조건을 결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 6세기 자료에 있는 일치소 핵어 ‘-으시-, -으샤-’가³⁾ 이 방언에서 기본 형태소가 아니라면, 거꾸로 이 방언은 6세기 이전의 다른 하위방언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계통이 다른 언어로 취급할 개연성이 있다. 이를 해석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만, 필자는 두 가능성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으시-’를 핵어로서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방언들을 확인한 뒤에 결정될 문제인데, 아직 관련 문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만일 이 방언 이외에도 그런 방언이 있다고 하면, 공범주 요소가 핵어로 들어가 있는 형상(자리가 비어 있는 형상)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김 지홍(2014b)의 결론을 따른다면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가능성에서 설사 공범주(empty category) 핵어나 비어 있는 자리를 설정하더라도, 왜 일치소가 구체적 형태소를 지니고서 실현되지 않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마주하고 있는 청자를 대우하는 방식 때문에 주어를 대우하는 일치소가 선택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달리 말하여, 이 방

에 익숙히 접한 일부 사회 계층에서만 자기 및 자기와 관련된 대상을 낮추는 일(두 개의 축이 가동됨)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높이는 대우 형식만이 먼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대우 방식의 발달과 관련하여, 대우 이론의 정립에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오-’가 녹아 있는 ‘-으샤-’가 사회적 방언을 반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 방언에서와 같이 ‘-으샤-’가 없이 쓰이는 다른 계층의 존재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느 계층의 방언에서이든 이런 대우 형태소가 존재했다는 점에 초점 모으기로 한다.

언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힘만을 문제 삼는 현장 중심의 매개인자(parameters)들을 우선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 중립적인 사건에 관한 매개인자들은 선택 범위에서 오랜 동안 멀어졌다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이 방언의 일부 사회 계층에서, 그리고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아마 이 방언을 쓰는 거의 전체 인구가 그러하리라고 봄)에서, 외부 논항에 일치될 부여할 핵어의 비어 있는 자리에 '-으시-'를 채워 넣는 선택이 아주 쉬웠으리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표준어 교육을 받은 이들과 매일 접하는 대중매체에 강력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공식적 기술로서 '-으시-'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고 서술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대우해 주는 '청자 대우' 방식에는 존재론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외부 논항에 일치를 구현하는 '주체 대우'가 일부 사회학적인 하위방언에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확고히 쓰이는 청자 대우 방식이 비어 있는 주체 대우에로까지 기능을 확대하였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신라 노래에서 확인되며, 이 기록 시점으로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쓰이고 있는 주체 대우 형태소가 제주 방언의 일부 사회 방언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기원론적으로 램스테트(Ramstedt 1952, 김 동소 1985 뒤침) 'IV. 대명사의 굴절'(75쪽)에서의 지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가정을 가능케 한다. 램스테트는 한국어의 1인칭, 2인칭 대명사가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하였는데, 조어에서 있었던 명사에 접미되는 대명사가 모종의 연쇄 작용으로 상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그 사람 이름'이⁴⁾ 만일 조어에서

4) 애브니(Abney 1988) 이후로 명사구가 지정사(D)가 투영하는 구성의 내부 논항으로 자리 잡는다는 가정이 일반적이는데, 이에 따르면 '그'가 DP와 관

‘사람 이름+ 그의’⁵⁾

와 같이 한정 접미사 구성이 기본 형상이라면, 이런 구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통사 내적 동기를 상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런 명사구를 지배하는 동사구의 기능범주의 필수적 실현 형태소로부터 접미 대명사를 공범주로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런 가정이 성립한다면, 제주 방언의 분기점을 역산하는 일을 시사해 준다. 적어도 6세기 이전에는 분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2. 상과 시제를 포괄하는 시상 형태: 무엇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시간 표현은 매우 단순하게 관찰자와 사건의 전개 모습만을 고

려되고, 사람 이름이 NP와 관련될 것이다. 이런 구성이 우연하게도 원시 조어의 구성과 일치하는데, 접미된 대명사가 DP의 핵어가 되는 것이다. 5) 그곳의 복잡한 특수기호를 빼고 통구스 예를 보이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머리’가 각각

‘beje(사람) gerbi(이름)+ ni(그의)’,
‘beje(사람) del(머리)+ ni(그의)’

이다. 알타이 조어가 한국어처럼 또한 후핵(head-final) 언어라면, 뒤에 접미된 대명사가 기능범주(D)의 핵어이며, 이 핵어가 투영하는 내부 논항 속에서 명사구 ‘사람 이름’이 실현된다. 이런 명사구에서 핵어가 공범주 핵어로 실현되려면, 반드시 이 명사구를 지배하는 상위 핵어가 있어야 한다. 후핵성에 따라 더 뒤에 나올 동사구의 핵어에서 그 후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응당 ‘-으샤’가 상정되어야 한다. 동사구를 투영하는 대우 일치소 범주가 더 앞에 있는 명사구에서 접미된 대명사를 지배하고, 공범주 핵어로 바꾸어 놓는 1차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분 또는 계급 사회에서는 대명사의 사용이 대등하거나 평등한 ‘나 : 너’의 관계를 전제하므로, 대신 대명사를 피하고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는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현대 한국어에서 상관을 결코 ‘너’나 ‘당신’으로 부르지 못하고, ‘과장님, 선생님’ 따위의 신분 관련 낱말을 쓰고 있는 현상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려할 경우에 상(相, aspect: 측면, 모습)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다시 사건을 전개하는 모습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전제로 할 경우에 시점들 사이의 대소 관계를 시제(tense)라고 부른다. 상의 표현에서는 기준점이 그대로 관찰자 속에 녹아들어가 있으며 따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관적 서술시점(관찰자 시점)으로 부를 수 있다. 관찰자는 자신이 관찰 내용을 말로 표현하므로, 관찰자에게 화자가 또한 잉여적으로 녹아 있다. 그렇지만 시제의 표현에서 내세운 기준점은 상대방과의 공유 기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 서술시점(상대방과 공유하는 시점)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흔히 채택되는 기준점은 발화 시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언어 표현 속에 지정되어 있는 임의 사건이 기준점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그런데 시제의 경우에는 흔히 시점들 사이의 대소 관계만을 따지기 때문에, 시점이 어떤 구간이나 사건 전개의 폭을 가리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어를 서술할 때에는 시점에 근거한 시간 표현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건 전개의 폭을 포착할 수 있는 상(相)의 모습을 끌어와 ‘시상’이란 말을 자주 쓴다.

이 방언에서도 한국어의 서술 관점에 따라 ‘시상’이란 개념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과거에 ‘동작상’이란 용어를 잘못 쓴 바 있다. 이는 오직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에만 국한되어야 하며,⁶⁾ 자연계의 무의지적 사건(단순히 인과율로 일어나는 사건)

6) ‘동작이 굵뜨다/빠르다’라는 말이나 또는 ‘동작거지’(擧止는 시작과 멈춤을 뜻함)라는 한자어에서 보듯이 모두 사람(자유의지를 지닌 주체)의 몸놀림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에 순서를 바꾼 한자어 ‘작동’은 기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쓰인다. 김 지홍(2014b : 92)의 각주 10)과 322쪽과 514쪽에서 자세한 논의를 읽을 수 있다. 이 방언에서는 사람(특히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청자)이 일으키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결어미를 찾을 수 있다.

들을 서술해 주는 데에는 결코 알맞지 않다. 이 방언의 전형적인 시상 체계에서는 ‘동작상’의 개념을 나타내어 주는 경우가 없다.

이 방언에서 규칙적으로 관찰되는 시간 표현 형태소는 결코 시점의 개념과 관련되지 않으나, 뒤에서 다룰 청자 경험 여부를 가리켜 주는 양태 형태소와 관련하여 현재 발화 시점이 ‘기준점’으로도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점들 간의 대소 비교를 가리키는 ‘시제’는 이 방언을 서술하는 데에 온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 전개의 모습이나 시간 폭을 가리키는 ‘시상’이란 용어를 이용하여 서술해야 한다. 소박한 객관적 기준점이 없이 쓰이는 상(相)이라기보다, 마치 시제처럼 객관적 기준점이 도입되어 쓰이므로, 상과 시제의 복합 개념 또는 중간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 전개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간 폭은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임의 상태의 변화로 표상되는 임의의 사건이 언제나 착수점과 종결점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 착수]라는 속성과 [± 종

① 청자를 상대로 하여 ‘-엄다?, -엄다?’라는 의문 서법의 종결어미가 쓰이는데(“느 그 약 먹엄다?”), 이는 반말투 종결어미 ‘-어’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뒤에 다시 ‘-디아?’가 결합한 복합 형태소이다(앞의 책 301쪽 이하 참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시상 형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음고?, -음이고?’라는 의문사(wh-word)를 수반한 종결어미로서 반드시 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쓰이며(“[느 어디 가]-음이고?”), 이 또한 명사형 어미 ‘-음’이므로 시상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앞의 책 244쪽 참고).

따라서 엄격히 말하여 시상 형태소 ‘∅, -았-, -앗-’ 들 중에서 ‘동작상’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오직 명사형 어미 ‘-음’을 매개로 하여 만들어진 복합 형태소들이, 청자의 행동이나 청자가 관련된 사건을 가리키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이 방언 연구자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인지, 여태 이런 괴리를 비판한 적이 없는 듯하다. 참고로 이 방언의 시상에 대하여 근년에 나온 박사논문이 홍 종립(1991), 우 창현(1998), 문 숙영(1998) 등이다. 그리고 『형태론』에 실린 문 숙영 교수와 이 효상 교수 사이에 주고받은 논박들 및 고 영진 교수의 수작(秀作)들도 큰 도움이 됨을 적어 둔다.

결]이라는 두 가지 속성만으로 이 방언의 시상 형태소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다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사건의 진행 과정과 종결된 사건의 지속 상태는 담화에 작용하는 다른 요소들이 도입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함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언의 시상 형태소의 실현은 동사에 따라 크게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형용사와 계사 및 반드시 내포문을 수반한 양태성 투영 동사(추측·희망 동사)가⁷⁾ 한 부류로 묶이고, 다른 부류로 일반 동사가 묶인다. 전자에는

‘∅ : -앗-’

이 형태상의 유무 대립을 이루지만, 후자에서는

‘-았- : -앗-’

와 같이 이항 대립을 구현한다.⁸⁾

7) ‘[~을까/~은가] 보다/싶다’나 ‘[~을/~은] 것 같다/상 바르다/듯하다’와 같은 추측 동사들과 ‘[~면] 싶다/하다/바라다/좋겠다’와 같은 희망 동사들이 서로 짝(하위부류의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상위 개념으로 아마 ‘양태 투영’ 동사로 부를 수 있다. 아니면 현상학 창시자 브렌타노(Brentano 1838~1917)의 용어를 빌려 ‘지향성 동사’를 내세울 수도 있을 듯하다. 엄격히 세 개의 논항을 지닌 동사이며, 외부 논항이 공범주로 나오고, 오직 대상 논항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일을 떠맡는 사격 논항의 자리에만 음성 형식이 실현되는데, 김 지홍(1992)를 보기 바란다. 비록 일상 언어에서 자주 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동사 부류에 주목한 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범주는 필자의 잠정적인 제안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철학이나 논리학에서는 ‘믿다’(believe)-류의 동사 또는 참값을 확정할 수 없는 ‘불투명’(opaque) 동사로 부른다. 모두가 제귀적인 ‘자기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아직 그럴 듯한 용어가 제안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8) 종전에 마치 ‘-았- : -았시-’라는 대립 형태소가 있는 듯이 잘못 기술되어 오기도 하였지만, 이는 모두 ‘-았-’이라는 형태소의 변이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미완료 의미 자체가 지속의 상 해석이 갖들게 되는 것이다. 이

이 방언의 시상 형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부 환경에서 시상 형태를 뒤따르는 ‘이’의 정체성이다. 김 지홍(2014b : 180, 285)에서는 미지의 ‘이’ 또는 신비의 ‘이’로 불렸으며, 294쪽에서 이를 양태 속성으로

‘해당 사건의 착수에 대한 확정성’

이라고 지정한 바 있다.⁹⁾ 비록 ‘-았- : -앗-’만이 나오는 환경과 ‘-았이- : -앗이-’가 교차하며 나오는 환경을 놓고서 귀납적으로 내린 결론이지만, 아직 필자의 개인적 결론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비판의 거쳐 공적 개념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2.3. 청자의 경험 가능성 여부를 표시하기: ‘청자 경험’의 양태¹⁰⁾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의 서술 방식에서 유일한 예외적 처리

형태소의 확정과 관련된 논의는 김 지홍(2014a)와 김 지홍(2014b)를 참고하기 바란다. 과도기적 조치로서 또한 제주발전연구원(2014 : 168~190) 『제주어 표기법 해설』에 있는 필자의 집필 부분도 같이 읽어 보기 바란다. 형태소 확정에서 이 방언도 또한 한국어에서 공통된 반말투 종결어미 ‘-어’가 활발히 쓰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암-’이라는 형태소를 논의하면서, 형태소 분석과 확립이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게 반말투 종결어미 ‘-어’와 명사형 어미 ‘-음’이 융합되어 있는 것(‘-업다?’의 ‘-엄-’)을 서로 구분해 내지 못하고 뒤섞어 버린 경우도 있다.

- 9) 포페(1960)에서 계사가 문법 형태소 구성에 참여한다는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 일전에 사담에서 일본 동지사 대학 고 영진 교수도 계사 구성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능성을 입증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계사의 특성을 오직 필수적인 계사 어간의 지위로 바꾸는 일이 확정되어야 하고, 둘째, 선접 요소의 명사 속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 모두 쉽지 않은 일이다.

- 10) 본디 측정된 분량(a measured amount or quantity)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modus로부터 문법 용어 modality(양태, 양상)와 mood(서법)이라는

방식이 ‘-습니다, -습디다’와¹¹⁾ 같은 덩어리 종결어미이다. 이는 ‘종합주의’로 불리는 문법을 계승한 것이며, 공시적 언어 모습에서는 단일한 형태소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한다(남 기심 1982). 반면에 일부에서는 통시적 정보를 이용하여 교착어의 질서대로

‘습+ ㄴ/더+ 이+ 다’

의 이분 대립이나 유무 대립을 드러내는 구성으로 분석해 놓으며, 이를 ‘분석주의’라고 부른다(임 흥빈 1982). 만일 15세기 한국어에서 화자 겸양(이 승녕 1981 개정판: 367쪽 이하)을 나타내는 ‘-습-’이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서구에서는 흔히 인간의 특성을 ‘지식/앎’과 ‘행위/실천’을 지닌 존재로 여겨 왔다. 이 구분 위에는 ‘가능성/개연성’과 ‘필연성/확실성’을 덧붙여 기본적으로 양태의 개념을 네 가지로 확립한 뒤에, 몇 가지 부차적인 양태 개념을 추가해 왔다. 전통적으로 지식이나 믿음과 관련된 양태(양상)를 인식 양태라고 부르고, 행위나 실천과 관련된 양태를 의무 양태라고 부르는데, 각각 칸트의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에 대응한다. 영어에서는 특히 조동사와 서법이 양태 범주로 다루지며, 부차적으로 관련 부사도 다루게 된다. 오늘날의 연구에서는 양태 범주를 더 확장하여 놓는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언어학에서는 시간 표현과 관련하여 aspect 상(相, 모습)이라고 번역해 왔기 때문에, modality를 ‘양태’라고 번역하지만, 철학이나 논리학에서는 상(相)을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말을 ‘양상’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태(態, 모습) 또한 상(相, 모습, 얼굴)과 의미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양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 11) 이들은 형태 배열만으로는 짝을 이루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청자에 대한 대우의 등급에서는 차이가 난다. ‘-습니다’는 ‘합쇼’ 등급에 배당하였고, ‘-습디다’는 더 낮은 ‘하오’ 등급에 배당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들 사이의 대우 등급 차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이 방언에서는 ‘-습-’이란 형태소는 없었던 듯하고, 오직 ‘-읍-’만 실현 되는데, 이들의 경정도 중요한 논의거리이다. 또한 이 방언에서는 각각 ‘-읍네다 : -읍테다’가 쓰이되, 표준어 서술과는 다르게 대우의 등급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여기서 ‘-네- : -테-’는 명백히 ‘ㄴ+이, 더+이’를 반영하는 축약(융합) 형태이다.

청자를 향해 있고, 결과적으로 청자를 대우하므로(허 응 1975: 691 쪽 이하), 청자 관련 자질이라고 본다면, 더 뒤에 실현된 화자가 상대하고 있는 청자를 대우하는 ‘-이’와 공통된 질서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 서법의 ‘-다’ 또한 기능상 청자의 정보 간격을 채워 주는 행위이므로, 청자와 관련하여 다시 서술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습+ 느/더+ 이+ 다’

의 구성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느- : -더-’만을 제외한다면(중세 국어 문법에서는 대체로 시제 형태소로 간주함), 모두 청자와 관련된 형태소들이다. 여기서 당연히 ‘-느- : -더-’가 청자와 관련된 형태소일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제일 수 없다. 왜냐하면 ① 청자 관련 형태소인 ‘습’에 의해 어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② 삼분 짝을 이루는 미래 형태소 ‘-리-’가 결코 계열체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습리이다).

따라서 만일 단순한 시제 형태소가 아니라면, 다음 가능성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후보가 ‘양태’적 기능이다. 김 지홍(2014b)에서는 청자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켜 주는 양태 요소로 주장한 바 있다. ‘-느-’는 여전히 청자가 발화로 전달되는 사건을 직접 체험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반면에 ‘-더-’는, 비록 관찰자이자 화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체험해 보았지만, 이미 사건이 완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진행 여부를 청자로서는 더 이상 체험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만일 이 주장이 옳다면, 왜

‘-습니다, -습디다’

(단, 이 방언에선 각각 ‘-읍네다/-읍니다, -읍테다/-읍디다’로만 쓰임)

가 한 덩어리로 묶이는지(종합주의 관점)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모든 형태소들이 청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청자 관련 형태소들도 덩어리로 그대로 놔 둘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분석주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착어 질서대로 낱낱이 분석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언의 복합 종결어미 구성체들을 살펴보면, 비단 이항 대립 형태인

‘-느- : -더-’

만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관형형 어미도 또한 이항 대립 형태로서

‘-을 : -은’

이 긴밀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들이 모두 청자 경험 양태로서 ‘-느-’와 ‘-을-’이 같은 부류로서 [+청자 경험 가능성] 자질이 배당되고, ‘-더-’와 ‘-은-’이 같이 묶이어 [-청자 경험 가능성]이 배당된다. 후자는 더 이상 청자가 해당 사건을 체험할 수 없으므로 오직 상대방 화자의 판단에 대하여 참과 거짓을 따져 볼 수 있을 뿐이다.

12) 반드시 짝을 이루는 것을 아니지만, 가령 다음처럼 의문 서법의 복합 형태 구성이 있다.

- ① ‘-을카[-으카]? : -은가?’(보리 타작 다 끝내었일카? : 다 끝내었인가?)
- ② ‘-을코[-으코]? : -은고?’(가이 어디 값이코? : 어디 갓인고?)

또 관형형 어미의 특성상 형식 명사와도 쉽게 복합 형태의 구성을 만들 수 있다.

- ③ ‘-을것가?[으것가?] : -은것가?’(공뷔 흐었일것가? : 공뷔 흐엇인가?)
- ④ ‘-을커라![-으커라!] : -은겨라!’(그디 비 오랴일커라! : 비 다 온겨라!)
- ⑤ ‘-을생이어! : -은생이어!’(늦이 서답 안 몰른생이어! : 서답 다 몰른생이어!)

현대 한국어에서 ‘-더-’라는 형태소를 놓고서 이미 많은 논의들이 쌓여 왔고, 소박하게 청자가 이미 지나 버린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모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 왔다. 대부분 ① 화자 자신, ② 관찰자, ③ 현재 체험할 수 없다는 개념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언급해 왔지만, 이를 아직 청자 쪽에서 서술해 보지는 못하였다. 화자는 임의의 의사소통 의도를 결정하고 나서 두 가지 선택지로 된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놓고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 의도를 참되게 표현할지, 아니면 속임수를 쓸지에 대한 결정이다.

둘째, 전자에서는 다시 언어로 표현할지, 아니면 비-언어(행동)로 표현할지 결정해야 한다.

셋째, 언어 표현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단, 간접 표현에는 우회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

그렇다면 ‘-더-’가 들어 있는 언어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만일 첫 번째 단계에서 ‘속임수’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그 화자가 해당 사건을 관찰해 보지도 못하였음에도 그런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 산출의 이런 관점에 유의한다면, [-청자 경험 가능성]은 신중하게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는지를 놓고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방언에서는 뚜렷하게 ‘-느- : -더-’로써 청자 경험 양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후자는 종결어미 뒤에 다시 종결어미가 융합되어 있는 이례적 구성의 경우다. 모든 한국어 방언에서 가장 쉽게 관찰되는 이른바 반말투 종결어미 ‘-어’ 뒤에,

다시 종결어미가 덧붙여 있는 형식이다. ‘먹었어 : 먹었어’과 같이 시상 대립을 보여 주는 비격식적 반말 표현이 있다. 대우하지 않은 채 격식적인 표현을 쓴다면 ‘먹었다 : 먹었다’처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반말 표현 뒤에 다시 반말투 종결어미 ‘-라’가 융합될 수 있다.

동사 ⇒ “먹었어+라 : 먹었어+라”, 표면형은 각각 [머게서라 : 머거서라]

형용사 ⇒ “크어+라 : 컷어+라”, 표면형은 각각 [커라 : 커서라]

계사 ⇒ “책이라+라 : 책이랏어+라”, 표면형은 각각 [채기라라 : 채기라서라]

이런 융합 구문은 강조 구문 형식으로 이뤄지며,¹³⁾ 심층 표상에서 다음처럼 표시될 수 있다.

“내가 관찰한 것이 [____]이다”

단, 빈 칸 속에는 ‘먹었어, 먹었어, 키, 컷어, 책이라, 책이랏어’가 들어가며, 그 해석도 또한 청자 경험 양태와 관련하여 이뤄지는데, [-청자 경험 가능성]으로 지정된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는 회상 또는 보고 등의 양태 의미와 같아진다.¹⁴⁾

13) 영어의 “it is ____ that ~” 구문은 일찍이 일상언어 철학자 Grice(1957)에 의해서 처음으로 화용적 동기가 논의되었다(Grice 1989 재수록).

14) 시상 형태소가 들어 있는 경우는 사건 전개 모습의 가리키므로 회상이나 보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형용사와 계사에서는 사건 전개 모습이 전혀 없다. 속성이나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컷어라, 책이랏어라’(꺄더라, 책이엇더라)는 반드시 회상이나 보고와는 다른 해석을 받아야 한다. 전형적으로 ∅ 시상 형태를 지닌 ‘커라, 책이라라’(크더라, 책이더라)는 관찰자로서의 화자의 당시 경험을 회상하거나 보고한다고 해도 흠잡을 게 없다. 그러나 ‘컷어, 책이랏어’는 필자의 직관에 상대방 청자가 지냈을 법한 믿음(크지 않다/작다, 책이 아니다)이 잘못되었다고

김 지홍(2014b)에서는 처음으로 이 방언을 놓고서 종결어미들의 융합 구성을 논의하면서 그 엄격한 체계성을 밝힌 바 있다. 이전에는 어미들의 대립에 대한 이론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울러 부주의하게 분석 과정에서도 마구잡이식 오류로 말미암아 ‘-서-’라는 독자적 형태소가 있는 듯이 잘못 서술하였었다. 회상 형태소로서 ‘-서-’를 내세운 현 평효(1985)에서는 놀랍게도 이 방언에서 모두 ‘12 가지’의 회상 형태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인간들에게 회상의 방식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미 경험한 사건을 장기기억 속에서 인출해내는 일이므로, 단순히 하나의 방식이면 충분하고도 적절한 것이다. 고 영진(1991)에서 12개나 내세운 회상 형태의 오류를 처음 지적한 이래, 이런 과장된 주장은 꾸준히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다. 그렇지만 아직 ‘-서-’가 융합된 모습으로서, 시상 형태 ‘-앗-’과 반말투 종결어미 ‘-어-’의 결합체이며, 회상의 해석이 갖드는지를 설명해 놓지는 못하였다.

보고, 그 믿음을 시정해 주려는 의도로 해당 사건을 완결 지어 표현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를 막연히 ‘대과거’라고 기술할 수는 없다. 이 방언에서 과거 시제도 완결 형식의 상에서 도출되어 나오는데, 과거에 대한 과거를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뒤에 있는 3.2.에서 언급된 융합 구성의 종결어미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어느 심사위원은 과거에 잘못 회상 형태소로 논의된 ‘-어-’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고 영진(1991), 「제주도 방언의 회상법의 형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회상법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 『갈음 김 석득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국어의 이해와 인식』(한국문화사)에서 이미 그 부당성이 설파되고 철저히 반증된 바 있다. 또한 이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동일한 회상 형태소 ‘-더-’에 대한 기능과 제약도 같이 논의되었다. 다만 필자가 고 영진 교수의 논의에 덧붙여 고인 벽돌은, 회상의 기능이 고정된 틈새(slot) 하나에 실현된 형태소에만 집착하지 않고, 융합 구성처럼 실현 계층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회상의 의미를 띠게 되는 다른 구성들도 있다는 사실이며, 이 사실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일이 또한 필자의 일후 과제이다.

이 방언의 시상 체계를 논의하는 경우에 관형형 어미 ‘-은, -을’과 형식명사 구성이나 또는 ‘-음, -기’의 명사형 어미 구성체로 이뤄진 종결어미들도 함께 논의되어 오곤 했었다(이는 뒤에서 다시 논의되고 <도표 5>에 정리되어 있음).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것들도 양태 형태소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뤄져야 옳을 것으로 본다. 만일 이런 시각을 수용한다면, 왜 굳이 고유한 청자 경험 양태 ‘-느- : -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형식명사 구성이나 명사형 어미 구성체를 이용하여 양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적절하게 변호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소 순환론이 되더라도 원초적인 발상으로, 언어의 형식들은 무의미하게 생겨나거나 까닭 없이 중복될 수 없다고 본다. 흔히 이를 언어 기제의 ‘제약’에 대한 작업가정으로 부른다. 이 제약은 의미자질을 통해서도 그리고 계층성을 지닌 구조를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

필자는 이 방언에서 양태 표현의 확장에 대한 이런 물음을 놓고서 대답을 문법화된 형식 명사들을 살펴봄으로써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양태 형태소의 속성에 없는 제3의 의미자질 때문에, 양태 구성을 확장하면서 양태 범주로 소속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양태 형태소의 속성을 서로 겹쳐지는 일부 형식명사의 의미자질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양태 범주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가 더 가능성 있는 추론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것으로서 형식명사 ‘상(相, 모양), 터, 바, 것, 이, 디(ㄷ)’와 명사형 어미 ‘-기, -음’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형태들이 담고 있는 의미 자질이 고유한 청자 경험 양태 ‘-느- : -더-’ 속에 들어있는 기능이나 의미 속성과 겹칠 수 있는 속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착상의 동기는 아무런 형식 명사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나올 수 없고, 오직 일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속성을 부각시켜

중으로써, ‘-느- : -더-’ 이외에 더 추가된 양태 범주를 확립하는데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명사형 어미로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김 지홍(2014b : 301 쪽 이하 및 그 곳의 <도표 10>)에서는 명사형 어미 ‘-기’가 한 사건의 진행 과정에 초점을 모으지만, ‘-음’은 한 사건의 결과 상태에 초점을 모은다고 보았다. 한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 상태는 임의 사건의 모습에 대한 한 단면을 가리키므로, 명백히 시상 개념 및 양태 개념과 부합될 수 있다. 시상 그 자체가 사건의 전개되는 모습을 가리킬 수 있다. 양태 개념도 또한 한 사건에 대한 필연성과 가능성(인간 행위에 적용될 경우에 각각 당위성이나 선택성, 아니면 의무나 허용 등으로 바뀔), 그리고 증거나 추체험 여부를 가리키므로, ‘-기, -음’이 지닌 의미자질이 양태 범주로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형식명사를 구현하는 복합 종결어미들에서 ‘-을 상(相, 모양)이다’는 ‘이’ 모습 역행동화가 일어나 [생이다]로 발음되는데, 사건 전개의 특정한 모습이나 국면을 가리켜 준다. 또한 일반 장소명사인 ‘곳’이 이런 구성에 참여할 수 없고, 유별나게 ‘터’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터, 장터, 샘터, 빨래터”와 같은 합성어에서 밀줄 친 ‘터’가 “*곳”으로 교체될 수 없다. 전자에는 아마 명확한 경계나 한계가 덧붙여 있지만, 후자에는 그런 제약이 깰려 있는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특정하게 닫혀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터’가 관습화된 사건의 진행 절차들에서 이어지는 단계들을 명시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통어에서는 ‘-을/-은 터’와 ‘-을/-은 마당’이 일부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으나, 이 방언에서 바꿔 쓰기를 한다면 낯설게 느껴진다. ‘마당’ 또한 집과 관련하여 특정하게 경계가 주어져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터’와 공통적이다.

이런 형식 명사와는 대조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상정할 수 없이

무표적인 ‘것’(입말에서는 ‘거’로 쓰임)이 있고, 보다 제한된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이’가 있다. 한쪽은 특정하게 범위와 한계가 주어져 있는 유표적인 형식 명사이고, 다른 한쪽은 범위와 한계를 부가할 수 없는 무표적인 형식 명사이다. 만일 이들이 두 축을 이루어 띠를 만들고 있다면, 중간에 들어갈 후보가 ‘바’와 ‘드’(단, 이는 ‘-을디, -은디’ 구성으로부터 재구성해 본 형식명사임)이다. 필자는 결과론적으로 다음처럼 추론한다. 아무리 무표적인 형식명사라고 하더라도 관형형 어미와 이어져 양태적인 구문을 이룰 경우에는, 한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특정한 지점이나 영역을 가리킬 수 있도록 유표적인 해석을 받는다. 다시 말하여, 관형형 어미와 같이 나오게 됨으로써, 무표적인 형식 명사가 ‘터’나 ‘상(모습)’과 같이 사건 전개 과정이나 결과 상태에서 특정 지점을 가리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추정이나 추론은 일정 부분 순환론적이다. 따라서 결정적인 반론도 결정적인 증명도 불가능할 수 있다. 오직 하나의 작업가정으로서만 의미를 지닐 뿐이다. 이 점이 한계이다.

한편, 공통어 ‘-겠-’과 대응될 수 있는 형태소가 이 방언에는 독특하게 ‘-으크-’로 쓰이며, 이 형태소가 ‘-을 것/거’가 하나처럼 융합되어 있는 ‘-으커’라는 형태와 양태상의 대립을 보인다. 공통어에서도 아직 ‘-겠-’과 ‘-을 것’ 사이에 명시적인 차이가 불분명하게 흐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더러 동일한 기능을 지닌 듯이 잘못 서술하는 경우도 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리 예정되어 있는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형식 명사를 이용한 구문만을 쓰게 된다. 가령,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여 내일 예정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9시 뉴스에서는 반드시 ‘-을 것’ 구문만으로 보도를 한다. 가령,

“내일 정오에 프랑스 대통령과 면담할 것입니다/면담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이런 일을 두고서 뉴스 보도에서 결코 “*면담하겠습니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비록 미리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가능한 일부 증거들을 놓고서 추정 또는 짐작하는 경우도 있다. 내일 날씨를 지금 주어진 증거에 근거하여

“내일 비가 오겠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정된 사건을 미리 말해 주고 있는 셈이므로, 일기 예보에 따른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 오직 하느님의 시각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대립적 의미 자질은 각각 ‘예정된 사건 : 짐작 추정 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방언에서 ‘-으크-’는 짐작 추정 사건에 대하여 쓰일 수 있다. 이는 굳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쓰이지 않고, 같은 시간대에 아직 내가 확증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쓰이며, 과거에 일어났을 법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남아 있는 일부 증거를 토대로 하여 추정이나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융합된 결과 발음이 매우 비슷하여, 이미 간행된 이 방언의 사전들에서도 부주의한 실수를 흔히 찾을 수 있는 ‘-으커-’(-을 짓)는, 전형적으로 예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미래 일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깃들어 있지 않고서는 쓰일 수 없다. 만일 이 융합 형태소가 [+착수, +완료]의 의미 자질을 지닌 시상 형태소 ‘-앗’을 구현하고서(계사 구문에서는 ‘-랏’으로 나오므로, 형태론적 변이형태임) ‘-으커랏어’로¹⁵⁾ 나오는 경우라면, 임의의 사건이

과거에 있는 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더 뒤에 일어났을 사건을 가리키며, 화용 맥락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속뜻도 깃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이 미국으로 가커랏어/갈키랏어”
(그 아이 미국으로 갈 거였어, 또는 갈 거였었어)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과거 임의 시점에서 그 뒤에 일어날 예정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의 경험이 그러하지 않음을

15) 발음은 재음절화되어 [으커라서]로 나온다. 이 방언에서는 이런 형식들에 대한 초보적인 형태소 분석조차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방언이 1백년이 넘는 연구 역사가 있다고 한들, 본격적인 형태소에 대한 분석도 전반적으로 이뤄진 바 없다는 사실은, 엄연히 연구의 낙후성에 다름 아니다. 철저한 연구가 이뤄지려면 전제가 일관된 이론의 수립인데, 아직 이 방언을 놓고서 일관된 이론을 수립하거나 적용해 본 바 없다. 일부 연구들에 의해서 과장되게 차이가 나는 자료들만 부각시켜, 이 방언을 마치 별개의 독립 언어인 양 분칠하면서 ‘제주어’라고 부르기에 골몰해 왔다. 아마 고(故) 현 평효 교수가 간여한 제주대학교 박물관 엮음(1995), 『제주어 사전』(제주도 간행)이 첫 시발일 듯하며, 계속 제주문화예술재단 엮음(2009), 『개정 증보 제주어 사전』(제주특별자치도 간행)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제주민족’이나 ‘제주민국’의 언어란 말인가? 제주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유한 민족도 아니고, 고유한 나라를 갖고 있지도 않으므로(대한민국의 부속도서임)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글에서 제시된 도표들은 모두 전적으로 한국어 일반의 형태들을 이용하여 이 방언의 특수한 용법들로 발전시킨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어느 하나 한국어 일반 요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비록 최근 이 방언을 2010년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하면서, 이 방언(Jeu Korean or the Jeju dialect)을 마치 한국어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독립된 언어’(Jeju Language)인 양 호도하는 왜곡된 논의가 있지만, 비유컨대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 정리한 모든 도표들 속에 제시된 형태들만을 주목하더라도, 모두 한국어의 기본 형태소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운용 방식만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애써 이 방언의 특별성만 왜곡하려는 시각은 우리 몸을 해치는 암과 같은 존재에 다름 아니다.

근거로 하여 반사실적 가정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으려
으나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타깝거다’나 ‘후회스럽다’는 속뜻
이 깃들 수 있는 것이다.

양태 형태소에 대하여 개관을 마치기 전에, ① 시상 형태소가
없이 양태 형태소만 나와 있는 경우와 ② 양태 형태소 뒤에 다시
시상 형태소가 나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언급해
두기로 한다. 우리말은 핵어가 뒤에 자리를 잡는 후핵성(head-
final) 언어로 분류된다. 이 질서에 따라 임의의 형태소도 뒤에 나
올수록 앞에 있는 여타 형태소들을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의
경우에는 양태 형태소의 의미에 따라 시상 해석이 자리를 잡는다.
그렇지만 ②의 경우에는 양태 표현 뒤에 시상 형태소가 나오는 경
우이므로, 본디 시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가당착이나 뒤
죽박죽의 해석이 될 위험이 있다. 필자는 이를 종결어미 뒤에 다시
종결어미가 덧붙어 융합형태를 이루는 질서에 토대를 두고 해석해
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앞에서 본 예문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그디 가커라”
(나 거기 갈거이라, 갈거다’)

는 온전히 종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뒤에 다시 시상 형태소
‘-앗’을 매개로 하여 반말투 종결어미 ‘-어’가 융합되어 있으며(-앗
어), 결국

“가커랏어”[‘가커라서’로 발음됨]
(갈 거였어, 갈 거였었어)

로 실현되어 있다(융합된 종결어미의 구성은 후술 참고). 이 때 융합
된 시상 형태소는 앞의 발화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사건을

더 앞에 일어난 사건으로 배치시켜 놓는 효과가 있다. 이런 때문에 ‘가켜랏어’의 공통어 번역으로 두 가지(-엇-, -엇엇-)를 병렬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②의 경우는 무질서하게 양태 표현 뒤에 시상 형태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융합된 종결어미를 구성하는 일정한 제약 속에서 관찰될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제약이 주어져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시상 형태소를 앞에다 놓든지 뒤에다 놓은 것은 결코 아님을 결론 내릴 수 있다.

2.4. 청자 대우의 표현 방식: 공식성 및 격식성의 두 축으로 된 4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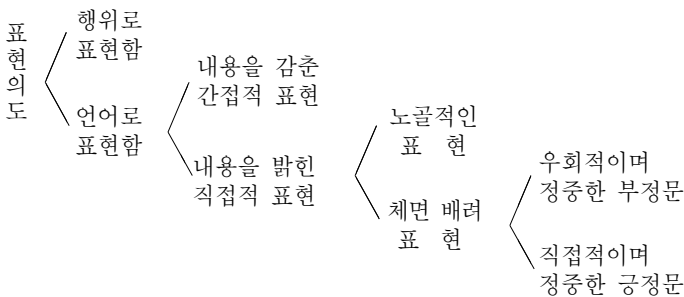
청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가장 밑바닥에서 작동하는 개념은 사회 관계(또는 인간관계)이며, 미시사회학에서는 공평성 및 체면의 개념으로부터 서술하기 시작한다(Clark 1996). 한국어는 이미 특정한 대우 관련 형태소를 뚜렷이 써 왔기 때문에, 그 연구가 주로 언어 형태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런 접근의 한계는 형태에만 몰입하여, 일정 범위의 언어 표현들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이 있으며, 대우의 궁극적인 원리를 탐색하는 데에 방해물이 되어 왔다. 서구 사회에서는 대우라는 말보다는 ‘정중성’(politeness)이란¹⁶⁾

16) 라틴어 polire의 과거 분사 형태(politus)에서 나온 말인데, polished(잘 닦인 상태), made smooth(미끄럽게 만든 상태)를 가리킨다. 필자의 직관으로 이에 어울리는 말을 고르면, 아마 ‘정중하다’, ‘예의를 다 갖추다, 예의를 차리다’이다. 여기서는 ‘정중한 표현’으로 부르기로 한다. ‘나라정’(鄭)이란 글자는 술 동아리(樽, 罍)가 제사 지내는 탁자(几, 臺) 위에 놓이어서 제사의 예의를 완벽히 다 갖춘 상태를 가리킨다. 정중(鄭重, 예의 갖추어 무겁다)이란 예의를 모두 다 갖추어 있는 상태이며,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말을 정중히 한다면 기본 표현에서 더욱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미시사회학자 고프먼(Erving Goffman, 1922~1982)의 사회적 자아를 세우려는 ‘체면 욕구’(face wants: 아래 진 수미 2013 뒤참 참고)를 처음으로 언어 표현에 적용한 업적은 Brown & Levinson(1978, 1987 확장

개념에 치중하여 전반적인 언어 표현 선택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왔다. 이 때 대우라는 개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하위개념으로 설정된다.

김 지홍(2014b : §.2-2-1과 §.3-1)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이 방언의 종결어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체계를 포착하고 제약을 찾아내기 위하여, 대우 표현에서 공식성과 격식성이라는 두 층위를 먼저 설정하고 나서, 이 층위에 따라 심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를 나누어 주는 하위 두 계열의 대우 체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식성은 둘 또는 셋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일단 발언이나 발화가 이뤄진다면, 지나간 내용에 대하여 원래의 화자는 ‘자신의 체면이나 신뢰성을 손상함이 없이는 취소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공신력이 유지되든지, 공신력이 떨어지든지에 관련되며, 화자에게 손해를 끼침). 공식성은 다른 말로 ‘화자 공신력의 지표/지수’가 되는 셈이다. 격식성(청자를 대접하는 속성)은 변별적인 고유한 형태가 짜임새 형태로 미리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되어

판)인데, 그 핵심을 다음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간접 표현’도 또한 매우 중요한 대우 방식임을 잘 알 수 있는데, 이는 형태소 중심의 정태적 자료를 벗어나서 반드시 담화 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표현 방식들의 관계를 앞뒤로 따져 가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 하겠지만, 똑같이 고유 형태들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단, ‘진지, 춘추’ 등과 같이 유표적 격식투 형식이 없을 경우에는) 격식적인지 여부가 형태소들의 무게(얼마나 긴 형태로 정중성을 표시해 주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의 언어 표현 투식이 도출된다.

- (1) 공식적이고 격식 갖춘 표현이 있고,
- (2) 공식적이면서도 격식을 갖추지 않은 표현이 있다.

여기서는 서술 서법과 의문 서법 등 고유하게 특정 서법에서만 쓰이는 형태들을 갖추고 있다. 공식적이며 격식 갖춘 대우 형태소는 ‘-읍’을 지니고 있으며, 공식적이지만 비격식적인 대우 모습은 ‘-수’(-으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들이 모두 대우 형식으로 분류된다. 또한

- (3) 비공식적(사적, 개인적)이지만 특정 서법에서만 실현되는 격식 갖춘 표현이 있고,
- (4) 사적이며 동시에 아무 서법에서나 두루 나올 수 있는 격식 없는 표현도 있다.

이들은 모두 대우를 하지 않는 평대 형식으로 분류된다.¹⁷⁾ (3) 고유한 서법 형태를 지닌 것으로 서술 서법의 ‘-다’, 의문 서법의 ‘-가?’, 명령 서법의 ‘-으라!’, 청유 서법의 ‘-자!’로 대표된다. 반면에

17) 어느 심사위원이 ‘평대·반말투·하대·대우 불능’ 등의 용어가, 기존 논의에서 고유하게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용어 선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필자가 4분 체계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 잘못일 수도 있다. 앞으로 필자가 더 정교하게 용어 사용법을 정해야 할 과제로 삼기로 한다. 여기서 언급한 공식성과 격식성은 각각 화자의 공신력 변수와 청자 대우 변수로 부를 수 있으며, 서로 적용 영역이 다른 것이다.

(4)는 억양을 달리하여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 형식으로 ‘-어’로 대표된다.

<도표 1> 제주 방언의 청자 대우 짜임(4분 체계)

고유 형태 사용 장면	격식적임	격식 없음
공식적임 (공신력과 관련됨)	‘-읍-’을 지닌 형식으로 ‘-읍네다, -읍네까?’	‘-수-’를 지닌 형식으로 ‘-수다, -수괴, -수가?, 수과?’
사적임 (의례상 부담 없음)	서법 고유의 형태가 있 으며 ‘-다, -가?, -으라!, -자!’	동일한 ‘-어’를 쓰되 억양만 달리하여 서법을 구분함

우리 문화는 화자인 ‘나’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방사형 인간관계를 엮어 오지 않았고, 오히려 상하 인간관계(수직적 사회관계)에 더욱 친숙하다. 따라서 정중한 표현의 보편적 서술 방식을 직접적으로 한국어 표현에 적용하려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 흔히 공식성과 격식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와 관련하여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및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멀지만, 사적이고 격식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이 매우 짧거나 가깝다고 서술된다. 그렇지만 한국어에서는 처음 만나는 경우(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터놓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가 어리거나 조직 내부에서 하위 부서에 있는 사람에게 ‘정중하지 않은’ 언어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는 흔히 ‘말을 내린다’고¹⁸⁾ 서술하는데, 반말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반말을 쓴다고 하여

18) 반대의 경우는 ‘말을 높인다’고 한다. 필자가 어렸을 적에 말을 높이는 경우를 일컬어 윗사람에게 “세 고부리다”(혀를 구부리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었었다. 아마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편히 혀를 놀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말하라는 속뜻이 깃든 듯하다.

결코 사회적 거리감이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고 지정할 수는 없다. 우리 문화에서는 오직 대등한 인간관계(사회관계)에서만 방사형 인간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과거 신분사회에서 높고 낮음에 대한 인식을 신분을 통해 지정해 놓았고, 가장 높은 이(가령, 임금이나 할아버지 등)가 듣는 사람이 될 경우에는 모두를 청자(임금이나 할아버지)에 맞추어 다른 이들에 대한 대우 표현을 삼감으로써(다른 이들이 청자와 관련하여 대우상 높지 않기 때문에 다만 평대 표현으로 가리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청자만을 높이게 된다. 이는 결국 대우 관계를 두 번 적용하는 일이며(한 번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다른 한 번은 청자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최종 청자’를 고려하면서 새롭게 대우 관계를 부여하는 복잡한 방식이 급격히 쇠퇴하여, 오직 단순하게 화자만을 중심축(가령, 나)으로 하여 최종 청자(가령,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가령, 아버지)이 대우 등급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할아버님, 아버님’으로 말해도 되는 것처럼 바뀌었다. 소위 대우나 존대를 눌러 평대로 바꾼다는 뜻의 압존법(壓尊法)이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존귀한 사람을 눌러 버릴 더욱 존귀한 사람이 있다는 뜻의 압존이란 개념은, 특정한 청자를 중심으로 하여 일관되게 대우 표현을 새롭게 계산하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대우상의 변화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가령, 자기 집안의 어른들) 모두 낮추는 겸양법도 조선 시대에는 중요한 예의범절이었다.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낮춤으로써 시이소처럼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소위 ‘배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남 앞에서 높이지 않고, 마치 지시 표현인 양 ‘집 어른’이라고만 부르거나, 자기 자식은 ‘집 돼지’(家豚)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 겸양에 속한 간접 대우 방식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런 역동적인 대우 표현 방식이 일부 보수적인 지역과 계층을 제외하고서는,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다. 이 방언에서는 아마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외부 논항의 대우 일치를 표시해 주는 ‘으시’가 없었다는 논의가 있는 만큼(현 평효 1985, 그러나 분명히 사회언어학적 변이임을 김 지홍 2014b에서 언급하였음), 그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압존(두 축에 따른 계산 방식)이나 자기 겸양(간접 대우 방식)과 같은 역동적인 이런 대우 표현 방식은 이 방언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을 법하다.

다음의 도표에서는 대우 관련 형태들을 일부 예시해 준다(김 지홍 2014b : 235). 종결어미들은 대우하지 않는 평대 표현들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다. 따라서 종결어미의 짜임새들을 살펴보려면 일차적인 대상이 평대 표현에 모아져야 한다.

<도표 2> 청자 대우의 관련 형태 예시(일부임)

어투 서법	청자 대우 ¹⁹⁾		평대 (대우하지 않음)	
	격식투 ‘-읍-’	비격식투 ‘-수-, -으우-’	서법 고유 형태	반말투
서술	-읍네다, -읍테다	-수다, -수괴, -수계 -으우다, -으웃괴, -으우계	-다(계사, 이어)	
의문	-읍네까?, -읍테까?	-수가?, -수과?, -수가? -으웃과?, -으우파?	-가?(계사, 이가?)	-어 (계사, 이라)
명령	-읍서!, -읍서!, -읍소서!		-으라!, -거라!	(청유 ‘-계 ² , -주 ² 도 가능)
청유	-읍주!		-주!, -자!, -계!	
약속			-마!	
감탄			-고나!	

19) 2015년 11월 7일~8일 이틀간 있었던 일본 경도대학의 세미나에서 필

이 승녕(1957)에서의 4분 체계와는 달리, 현 평효(1985 : 107쪽 이하)에서는 이 방언의 대우 체계를 3분 형식으로 나눠서 다음처럼 제시하였다.

자가 이런 구성을 발표하였을 때, 일본 동지사 대학의 고 영진 교수와 전북대학의 고 동호 교수가 격식투와 비격식투의 상이한 형태소 배열을 염두에 두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격식투에서는 분명한 이항 대립 형태소(또는 굳어진 모습 속의 형식소)들을 찾을 수 있다. 양태적 요소로서 ‘-느 : -더’의 대립이 여전히 뚜렷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격식투의 형태소 배열에서는 이런 모습이 찾아지지 않는다. 특히, 고 영진(2007, 2008)에서 지적된 ‘-읍네다’의 진리 표현의 양태를(2차적 의미로서의 진리 양태), 결코 ‘-수, -으우’에서는 찾을 수 없다. 대신 오직 1회적인 사건 관찰/경험과 관련되어 쓰일 수 있음이 사실이다. 중요한 지적에 두 분께 모두 감사드린다.

여기서 필자는 두 교수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임시 답변으로 적어 두고자 한다. 첫째, 여기서는 세부 의미자질에 초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틀을 만드는 일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일단 세세한 사항들을 우선 고려사항에서 제외한다. 이 도표에서는 청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둘 이상의 집단인지에 따라서도 변동이 생기는데, 거시적 관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이 사실도 고려해 놓지 않았다. 둘째, 만일 비격식투의 대우 형태소 ‘-수다’도 종결어미가 다시 융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면(‘-소+ -이다’ → ‘-소이다’ → ‘-쉐다’ → ‘-수다’), 종결 형태소의 증가 모습에서도 양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동일한 자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차적 의미에서 양태성을 새롭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뒤에 제시된 <도표 4>와 <도표 5>의 융합된 종결어미 모습들이 분명히 이 방언의 언어 현상으로 실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분명히 연구자 개인의 식견과 관련되어 있다. 증거태가 인용문과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도 또한 <도표 6>에 제시된 이 방언의 사례로 다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양태와 인식 관련 영역에 대한 논의는 독립된 모습으로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일단 양태적 의미자질이 격식투와 비격식투에 모두 들어 있다고만 서술하여 잠시 매듭을 짓기로 한다.

아직 질문이 제기되진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 대화 상황에서 “밖에/밖의 비 오랐수다, 우산 썩 가십시오!”와 같이 비격식투와 격식투의 자연스런 연결도 설명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다. 아마 비격식투의 명령 형태라면 평대 모습과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표 2>에서 보여 주는 공백에 격식투가 쓰였을 듯하다. 만일 일관되게 모두 격식투로서 대우했다면 “밖에/밖의 비 오랐읍네다, 우산 썩 가십시오!”처럼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임금과 같은 청자를 상대로 하거나, 또는 9시 뉴스의 진행에서와 같이 최고 등급의 공식적인 말투이다.

‘ㅎ라체, ㅎ여체, ㅎ서체’

그러나 이런 3분 체계는 오직 <도표 2>에 있는 ‘명령’ 서법만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표 2>에서 각각 ‘-으라!’와 반말투의 ‘-어!’와 ‘-읍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표 2>는 이런 3분 형식이 잘못된 결정이며, 부분적임을 한 눈에 확인시켜 준다. 첫째, 3분 형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비격식투의 청자 대우 형태 ‘-수-, -으우-’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념상으로는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비격식투’의 청자 대우 명령은 존재할 수 없다. 이는 곧장 평대 명령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간접 화행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뒤에서 살펴볼 <도표 5>와 <도표 6>에서는 명령 서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령 서법에서 나온 대우 체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종결어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3분 방식이 이 방언의 질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3분 체계를 유도하였던 명령 서법은 행위와 관련되므로, 인간 생활 중 오직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언어는 지식(앎, 순수 이성)과 행동(행실, 실천 이성)에 모두 관련된다. 더군다나 종결어미 형태소의 숫자들은 단연 서술 서법에서 압도적으로 앞선다. 의문 서법 다음이고, 다시 명령·청유 서법이 그 뒤를 따른다. 약속이나 감탄 서법에서 빈 칸은 역량을 달리면서 서술 서법의

어느 심사위원의 지적 중에서, 비격식투의 대우와 격식투의 대우가 혼용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공통어에서도 비격식적인 ‘-요’와 격식적인 ‘-습니다’가 뒤섞여 쓰이는 경우와도 비견된다(가령 중등교실 수업에서 그러함). 그런데 담화 전개의 흐름에서 시작 및 마무리 부분의 말투가 전체적인 인상을 지워 놓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소위 ‘bath-tub’ 효과임). 이 방언의 ‘-수다’와 ‘-습네다’의 혼용도 또한 담화 전개에서 보면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두 가지 대우투가 쓰이더라도 ‘-습네다’ 말투로 귀착될 수 있다.

형태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앎(지식, 순수 이성)은 서술 서법과 의문 서법으로 나오므로, 제일 많이 이용되는 서법인 만큼 형태소의 숫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대우 체계를 구성할 경우에는 마땅히 서술 서법을 대상으로 삼아야 옳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방언의 대우 체계를 명령 서법에 근거하여 3분법으로 서술해 온 현 평효(1985)의 접근은 잘못이다. 명령 서법에만 골몰하여 설정했던 3분 체계는, 면밀히 이 방언의 종결어미 형태소들을 귀납시켜 도달한 종결어미들의 구성 체계와도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도표 1>의 [± 공식성] 및 [± 격식성]의 자질 배합을 더 쉽게 다음처럼 설명할 수도 있다. <도표 2>의 4분 체계는 먼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취소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공신력(또는 공식성)에 따라 두 계열로 나뉜 뒤에, 다시 고유하게 격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 세세하게 나뉜다. 물론 처음부터 대우 형식에서 이를 먼저 격식투와 비격식투로 나눈 뒤에, 비대우 형식에서 고유 형태와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 형태로 나눌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간략히 대우와 비대우로 나뉜 2분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대우의 화용 첨사 ‘마씀, 마쌌, 예, 양, 야’ 따위가 덧붙여 청자 대우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오직 반말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제대로 포착해 줄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필자는 두 개의 축이 설정된 4분법을 채택한다. 4분 체계의 경우에는 이승녕(1957, 1978 재판: 153쪽 이하)에 제시되어 있는

‘평칭, 중칭, 존칭, 극칭’

의 구분과 서로 대응할 수 있다. 평칭과 중칭은 비대우 형식들과 관련되고, 존칭과 극칭은 대우 형식들과 관련되며, 화용 첨사의

부착에 의해서 변화하는 대우 등급은 ‘중칭’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방언의 대우 체계는 한국어의 대우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종결어미의 하위 범주와 짜임

이 방언의 종결어미들은 일견 복잡다기한 듯이 서술해 놓지만, 종결어미들을 포착하는 올바른 그물짜임새만 제대로 갖춘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이런 그물짜임은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이전의 연구에서 그 체계를 남김없이 산뜻하게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종결어미들의 체계를 그물질하려면 특정 관점과 식견을 동원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론적 관점은 자의적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다. 현대 학문의 방법론을 준수하면서, 귀납의 경로를 따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연역 개념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체계는 앞으로 다른 생각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비판을 받으면서 정합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김 지홍(2014b : 223, 349, 376, 396)에서 다뤄진 평대 관계의 종결어미들을 놓고서 다뤄 나가기로 한다. 대우를 표시해 주는 종결어미들은 평대 관계의 종결어미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선어말어미 형태(‘-읍-’ 및 ‘-수-’)를 실현시키고서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평대 관계의 종결어미들을 정밀히 탐사하는 일이 이 방언의 종결어미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에 토대를 다지는 셈이다.

평대 관계의 종결어미들은 크게 고유한 서법에서만 관찰되는 형태가 있고, 억양만 달리 하면서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 형태가 있다. 반말투 형태는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어’

인데, 이는 계사가 서술 서법으로 활용할 때 관찰되는 ‘이언’(“그러나 책이언”)와는 구별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구분 기호로서 첨자를 붙여 ‘-어¹’로 쓰고, 계사의 서술 서법에서 관찰되는 종결어미는 ‘이언²’로 써서 서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단, 여기서는 번다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만 첨자 표시를 써 놓기로 한다.

3.1. 무표적(전형적) 종결어미

이 방언의 종결어미들을 살펴보면, 본디 고유한 형태를 지닌 부류가 있고, 종결어미를 중첩시키거나(융합 구성으로 불림) 또는 관형형 구성이나 내포문 구성을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진 부류가 있다. 여기서는 전자를 ‘무표적’(또는 전형적) 종결어미로 부르고, 후자를 유표적인 ‘복합’ 종결어미라고 부르기로 한다.

무표적이고 전형적인 종결어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법 고유한 종결어미들이고, 다른 하나는 억양만 달리 하여 두루 여러 서법에 걸쳐 쓰이는 반말투 종결어미로 나뉜다. 특히 반말투 종결어미에는 비격식투의 대우 화용 첨사 ‘마씀, 마썸’이 덧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반말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우 화용 첨사는 ‘마씀, 마썸’ 이외에도 또한 ‘예, 양, 야’도 관찰된다. 여기서는 간략한 예시를 위하여 이들을 모두 ‘마씀’으로 대표하여 다루기로 한다. 이와는 달리 서법마다 고유한 종결어미들에는 원칙적으로 선어말어미(‘-읍-’ 및 ‘-수-’)를 이용하여 대우를 표시해 주게 된다(‘-읍네다, -수괴/-수게¹’). 따라서 중첩되게 ‘마씀, 마썸’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법 고유의 종결어미가 모두 대우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배타적으로 오직 평대에만 쓰이는 일부 형태를 골라내어 하위 구분을 해 주어야 한다. 다음의 <도표 3>에서 가령 서술 서법의 종결어미 ‘-다’와 ‘-게¹’

에는²⁰⁾ 대우 선어말어미가 실현되어 ‘하다’를 활용시키면 ‘흡네다, 흡없수게¹⁾’와 같이 쓰인다. 그렇지만, ‘-저¹⁾’이나 ‘-고라¹⁾’에는 대우 선어말어미가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흡네저¹⁾, *흡없수저¹⁾,
*흡네고라¹⁾, *흡없수고라¹⁾

그 대신 오직 ‘흡없저¹⁾, 흡엿저¹⁾’(단, ‘흡저²⁾’는 서술이 아니라 의향이나 의도의 의미를 지니는 동음이의 형태소임)나 ‘흡고라¹⁾, 흡없고라¹⁾, 흡엿고라¹⁾’와 같이 대우 선어말어미가 없이 실현될 뿐이다. 그렇지만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 필자는 이들이 양태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보는데(다음 절에서 다룰 유표적인 복합 종결어미도 그러함), 한국어의 구성에까지 새롭게 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자세한 논증은 뒷날 별고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표 3>은 이 방언에서 전형적인 종결 형식으로서 서법에 고유한 종결어미가 있고, 억양을 바꾸면서 여러 서법에 두루 걸쳐 쓰이는 반말투 종결어미가 있음을 보여 준다. 후자는 또한 ‘마썸, 마썸’이란 화용 첨사를 허용하는데, 그 결과 비격식적 대우 표현이 된다. 고유한 서법에만 나오는 종결 형식에서도 특이한 구분이 들어 있다. 대우 가능한 부류와 오직 평대로만 쓰이는 부류이다. 전자는 ‘-읍네-/-읍데-’(‘-읍니-/-읍디-’)에 붙는 ‘-다’와 ‘-수-/오우-’에 붙는 ‘-게’(‘-괴’)가 있다. 그 결과 ‘-읍네다/-읍데다’(‘-읍니다/-읍디다’)와 ‘-수게/-오웃게’(‘-수괴/-오웃괴’)가 나온다. 의문 서법에서는 오직 ‘-가?/-과?’만 있는데, 이것이 모두 격식투의 ‘-읍넷가?/-읍데가?’

20) 윗첨자가 붙은 숫자들은 김 지홍(2014b)에서 같은 음성 형식을 지니지만 형태소 결합의 제약에 따라 서로 의미자질이 구분되어야 하는 형태들을 놓고서 편의상 식별의 목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도표 3> 평대 관계에서 관찰되는 종결어미 형태소(일부 예시)

어투 서법	서법 고유의 형태		공통된 반말투 형태	
서술법	대우 가능	-다(계사, 이어 ²⁾ , -계 ¹ (계사, ‘이계 ¹ ’), ‘-괴’		
	대우 불능	-저 ¹ , -저 ² , -과라 ¹ , -고라 ¹ , -노라 ¹ , -이, 반모음 -y, -에 (감탄 서법을 겸용, 정보 전달적임) -네, -데, -니에, -이에, -나 ¹		
의문법	대우 가능	-가?(계사, 이가?), -과?,		
	대우 불능	-나 ² ?, -고?(자문 형식), 의문사~21) -고?, -나?(의문사~ -니?), -다?(의문사~ -디?), -야?(의문사~ -이?)		
명령법	-으라!, -거라!			-어 ¹ (계사, 이라 ²), -쥐 ¹ (-주 ¹),
청유법	-자!, -주 ¹ !, -계 ² !			
약속법	-마! -으키어!(으크+ 이어)			
감탄법 (혼잣말)	-고나 ¹ !(계사, ‘이로고나 ¹ !’), ‘-고낭아!’(늘), ‘-고!’(쭈), -노나 ¹ !			

21) ‘wh-word’(의문사)는 ‘언제, 무엇, 왜’ 따위가 문장 속에 있을 경우에

(-읍니까/-읍디가?)와 비격식투의 ‘-수가?/-으웃가?’(-수과?/-으웃과?)에 붙을 수 있다.

서술 서법의 종결 형태 중에서 감탄 서법에도 쓰이는 것은 본디 혼잣말로 쓰이는 부류와는 서로 구분될 수 있다. 혼잣말로 쓰이는 감탄 서법 종결 형태는 특이한 화용상의 전제가 있다. 수의적으로 화자인 나의 느낌을 그대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 발화하지 않는 한, 감탄 서법의 기본값은 언제나 혼잣말로써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 스스로 느낌]

이라는 자질을 줄 수도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탄 서법의 형태들은 상대방을 대우하는 대우 형태소를 선행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술 서법에서 확장되어 감탄 서법으로도 쓰이는 형태에는 혼잣말이라는 전제가 전혀 깔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이 이뤄진다. 이는

[+ 스스로 느낌, + 상대에게 통보]

라는 자질을 주어 서로 구분해 줄 수 있다.

이런 종결 형태들을 놓고서 개개의 의미자질이 또한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래 전에 이뤄진 연구에서 고유한 서술 서법의 ‘-저’와 반말투 형태 ‘-주’를 마치 같은 짝인 것처럼 잘못 기술한 적이 있음을 보면,²²⁾ 이런 일이 또한 절로 쉽사리 진

오름세 의 억양(상승 어조, ˊ)이 내림세 억양(하강 어조, ˋ)으로 바뀌며, 또한 종결 형태에서도 ‘아?’가 탈락되어 ‘이’로 되거나, 의문 첩사 ‘가?’과 ‘고?’로 바뀌어야 함으로 가리킨다. 이하의 도표들에서도 모두 동일하다.
22) 현 평효(1985)에서 단지 동일한 초성 소리 ‘ㅈ’을 지녔다는 피상적인 이유만으로 ‘-저’를 ‘-주’와 동일한 범주의 종결어미인 것처럼 논의한

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의미자질을 기술하는 틀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도 후일의 과제이다.

3.2. 복합 형태의 유표적 종결어미

복합 형태의 유표적 종결어미 부류들은 첫째, 종결어미 뒤에 다시 종결어미가 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둘째, 관형형 구성(-은/-을 + 형식 명사)이나 명사 구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셋째, 접속문 형태로부터 줄어든 종결어미, 넷째 내포문 형식으로부터 줄어들어 종결어미로 굳어진 경우가 있다. 이 방언에 이런 복합 형태의 종결어미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김 지홍(2014b)에서 드러내어 논의하기 이전에는 전혀 주목조차 받지 못하였다. 아

것은 잘못이다. 이들 형태들과 결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제와 속뜻과 요구 등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저¹’은 청자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고, 화자가 그 사실을 발화하여 깨우쳐 주려고 할 때 쓰인다. 반면에 ‘-주¹’의 의미는 지금 화자가 짐작하거나 추정하는 일이 있고, 이를 언급하여 청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자질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를 다음 도표로 양자를 대립시켜 제시해 둔다.

서로 다른 계보의 종결어미 ‘-저¹’(고유 서법) 및 ‘-주¹’(여러 서법에 쓰이는 반말)

하위범주 결합 특성, 기능		고유한 서술 서법 범주의 ‘-저 ¹ ’	여러 서법에서 두루 쓰이는 반말투 범주의 ‘-주 ¹ ’
형 태 결 합	계사, 형용사	계사와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않음	계사와 형용사 어간에도 결합됨
	시상 형태소	동사는 ‘-않저, -앗저’만이 가능함	동사 어간과, 시상 ‘-않주, -앗주’도 가능함
	양태 형태소	양태와의 결합은 불가능함	‘-을테주, -을 거주, -겠주’처럼 결합함
화 용 상	깔린 전제	청자 화자 사이의 정보 간격을 확신	청자가 알고 있을 법한 바에 대하여 짐작함
	깃든 속뜻	관련 명제에 대한 사실성이 깃들	예상된 관련 명제의 가능성이 깃들
	청자에게의 요구	청자를 일깨워 줘서 정보 간격 없앰	청자에게 사실 여부 확인해 주도록 요구함

마 종결어미들을 포착할 이론적 설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판단한다. 이런 부류가 모두 양태의 의미를 띠고 있음이 이채롭다. 그렇지만 왜 양태 관련 형태소가 많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만일 우리 인간의 판단과 결정 과정이 즉각적인 원시 체계(‘체계1’)와 신중한 검토 체계(‘체계2’)가 있음을 고려한다면(카느먼 2011, 이 진원 2012 뒤침), 분명히 후자 쪽에서 답변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만큼 양태 관련 요소들이 복합적인 전체와 함의가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3.2.1. 융합체로서의 종결어미

먼저 융합 구성의 종결어미들을 보이면 다음 <도표 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도표 4> 융합 구성의 종결어미(일부 예시)

어투 서법	서법 고유의 형태		반말투 (‘마씀’이 붙을 수 있음)	
서술법	-어(반말)+ 라		-어(반말)+ 은게 -어(반말)+ ㄴ	
	-다(고유)+ 문 ²³⁾ -어(반말)+ 니에	감탄 서법 겸용	-어(반말)+ 고나	감탄 서법 겸용
의문법	-어(반말)+ 냐?(의문사~ -어니?) -어(반말)+ 은다?(의문사~ -언디?) -어(반말)+ 음다?(의문사~ -ئم디?)		위의 ‘-어(반말)+ ㄴ?’이 자주 쓰임	
	혼자 스스로 묻는 자문 형태 -어(반말)+ 은가?(의문사~ -언고?)			
명령법	-어(반말)+ 으라! -으라(명령)+ 문!		X	
	-오+ 읍서!(대우 표현이며, ‘-수’가 나온 ‘-소+이다’의 융합과 동일함)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융합을 허용하는 종결어미가 기본적으로 반말투의 형태 ‘-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 방언이 그대로 한

23) 공통어에서 ‘-려무나!’(하려무나!, 오려무나!)와 비슷한 구성을 지니는데, ‘음+ 으나’가 융합된 뒤 ‘으르나’, ‘으무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이 마찬가지로 명사형 어미 ‘음’과 의문 또는 감탄에 쓰이는 종결어미 ‘으나’와 융합하여 ‘음으나’를 이루고, 음운 변화를 거치고(으무나) 마지막 음절의 모음 ‘아’가 탈락된 뒤에(으문), 언제나 모음으로 끝나는 종결어미와 융합되기 때문에 ‘-문’으로만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 심사위원 두 분이 각각 ‘-어’와 ‘-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어느 분은 융합 사례들에서 공통어(중양어)에서 반말투 ‘-어’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어미”인데, 왜 이 방언에서는 다른 종결어미들이 결합하는지 질문하였고, 공통어(중양어)의 인용구문에서 보이는 부류와 구조 및 의미상의 동인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융합된 어미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필자가 한마디로 간단히 명확한 답변을 내 놓을 수는 없다. 현재 필자의 지식으로써 이런 문제점은 다만 융합 범위 및 기능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하는 것으로만 우회적인 대답을 할 밖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분은 공통어(중양 방언)에서는 반말투 종결어미 ‘-지’가 나타나는데, 왜 ‘-어’ 하나만 이 방언에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융합 구성에서 종결어미 ‘-어’가 회상 형태소 ‘-더’와 유사한 해석이 유도되는지에 대한 보완 논의를 요구하였다(이 요구는 필자의 일후 과제임을 적어둔다). 공통어의 어미 ‘-지’에 대하여 언급한다. 필자가 느끼기에 ‘-지’는 각각 의문법과 서술법에 따른 두 가지 양태적 기능을 담고 있다. 올림 억양의 의문문으로 쓰이면 ① 화자가 지닌 어떤 짐작이나 추정 내용을, 청자로부터 확인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내림 억양의 서술문으로 쓰이면 ② 미리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놓고 이를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청자에게 통보하여 깨우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런 부류는 각주 22)에 있는 도표에서 언급한 이 방언의 ‘-저’와 ‘-주’ 무리에 비견될 수 있으며, 양태 자질을 띠는 점에서 자연 부류로 묶인다(‘-지’가 이 방언의 ‘-저’, ‘-주’의 기능을 통합한 듯이 보이지만, 본래부터 ‘-지’가 이 방언에서도 쓰였는지에 대한 정밀한 탐사와 분포 확정이 면밀히 더 진행될 필요가 있음). 그렇다면 이런 형태소들이 모두 양태적 자질이나 의미가 이미 그 속에 채워져 있으므로, 더 이상 융합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어’는 말을 끝낸다는 반말투의 종결 기능 이외에는, 전혀 그런 양태적 자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다시 융합 구성을 형성하여 모종의 양태적 특질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그렇지만 이는 많은 연구자들과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어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반말투 종결어미를 당연히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아무도 반말투 종결어미 ‘-어’의 엄연한 존재를 주목한 적도 없고, 부각시킨 적도 없다. 단지 이 방언이 유다르다고 선언해야만 남의 주목을 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철저한 착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도표 4>에서만 보면, 고유한 종결어미로서 서술 서법의 ‘-다’(-다문: “지금 밥 먹었다문, 날이 다 붉았다문”)와 명령 서법의 ‘-라’(-라문: “흔저 이디 오라문!”)이 예외에 속할 뿐이다.

공통어를 대상으로 하여 임 홍빈(1984, 1998 채수록)에서

‘-어+ 으라, -자+ 사+ 구나, -자+ 사+ 으라, (일부 ‘-다+ 은다’도 그러함)’

등의 융합체가 처음 밝혀진 뒤에(밑줄 그은 형태들이 추가로 융합된 종결어미임), 안 명철(1990), 이 지양(1998), 김 수태(2005), 허 경행(2010) 등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현재 ‘동면기’로 접어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앞으로 이 방언의 융합 구성체들에 논의로부터 더욱 활발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역사적 단편 자료들에 대한 해석에도 관련성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어의 후핵성 매개인자를 고려하여, 뒤에 덧붙은 종결어미들이 중요하게 현재 발화 시점을 기준점으로 고정시키고, 앞선 종결어미의 발화를 전체 시간상으로 더 앞쪽으로 이동시켜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세한 논의는 앞에 논의한 II-3, 그리고 김 지홍(2014 b: §2-3, §.3-4, §.4-3)을 보기 바란다.

종결어미 뒤에 종결어미가 융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경우가 내포 구문으로서 인용문 “비가 온다고 한다”(또는 줄어들면서 ‘비가 온단다’)가 구문 형식상 비교될 수 있다. 융합된 복합 종결어미와 인용문(또는 줄어든 인용문) 사이에서는 엄격히 내포 구문을 이끄는 ‘교점’(node)이 기본 표상에서 하위 계층에 사격 의미

역을 받는 논항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융합 형식은 결코 그런 교점이 상정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상의 차이만을 제외한다면, 시간 해석에서 ‘일부’ 겹치는 대목을 찾아낼 수 있다. 인용문에서의 시간 해석이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고 한다’의 내포문에 다음처럼 시간 표현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어떤 형태소든지 다 나올 수 있다.

‘비가 온다고 한다, 왔다고 한다, 왔었다고 한다, 오겠다고 한다, 올 거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다고 하다’의 상위문에서도 시간 표현이 제약 없이 아무런 형태소이든지 나올 수 있고, ‘-을지 모르다’와 같이 다른 양태 표현도 가능하다.

‘비가 온다고 했다, 온다고 했었다, 온다고 하겠다, 온다고 할 거다, 온다고 할지 몰라’

<도표 4>에서 이 방언의 융합 구성을 이루는 종결어미를 살펴보면, 귀납적으로(결과론적으로) 두 가지 제약을 찾아낼 수 있다. 먼저 나온 종결어미는 ‘-다, -으라, -오’만을 제외하면, 모두 반말투 종결어미 ‘-어’이다. 한국어가 ‘격식·비격식’/‘공식적·사적’ 말투를 따로 발달시키지 못하였을 법한 초기 단계에서, 이는 가장 무표적인 종결어미로 쓰였을 개연성을 높여 준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종결어미에도 엄격한 제약이 관찰된다. 여기에는 인용의 상위문에서처럼 양태를 가리킬 수 있는 ‘∅, -은, -음’을 제외하고, 결코 시간 표현 형태소가 나타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방언의 자료에서는 서술 및 감탄의 종결어미 ‘-구나’에서도 ‘-구’를 양태 의미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분포가 있으며(가령, ‘-수괴, -숫과?’ 따위), 융합 구성에서도 찾아짐을 적어둔다. 이는 융합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양태 특성이 결국 융합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다만, 양태와 관련을 지을 수 있는 형태들이 유무 대립인지, 이항 대립인지, 다항 대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종결어미가 다시 융합한다는 사실을 놓고서, ‘현재 발화 시점’을 시간 해석을 위한 기준점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형적인 ‘상’은 2원 체제이다. 오직 관찰자 및 관찰사건 사이에 임의의 시폭이나 시점들만 주어질 뿐이며, ‘감정이입’(empathy) 기제를 통하여 ‘청자·화자·관찰자’가 모두 하나로 되는 만큼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시간 표현 방식이다. 상(aspect)의 표현에서는 결코 관찰 시점과 발화 시점을 따로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다(외재적 관점 수립이 발달되지 않는 단계임). 그렇지만 기준점이 도입될 경우에²⁵⁾ 3원 체제의 연산이 가능한 ‘시제’로 발달하며, 비로소 대소 또는 등치 따위 대수적 관계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필자의 주장이 옳다면, 이 방언에서 더 이상 2원 체제의 ‘동작상’이란 개념은 수립될 수 없는 것이다. 시간 해석에 ‘기준점’이 갖든 ‘시제-상’의 혼성 개념 ‘시상’만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 표현의 해석을 보면, 인용문에서는 내포문 동사와 상위문 동사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소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 찾아지는 융합 구성체에서는 현격한 제약이 주어져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뒤에 융합된 종결어미들이 ‘∅, -은, -음, (-구/-고)’를 지닐 수 있고, 이것들은 언제나 양태 해석을 유발한다. 둘째, 전형적으로 양태 형태소가 녹아 있는 후행 종결어미들의 구성도 또한 형식명사 구성이나 명사형 구성을 취하고 있

25) 일부에서는 ‘참조시’(reference time)라고도 부른다.

다. 셋째, 시간 해석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 가령,

‘[비가 온다]고 한다’

라는 인용문에서는 시간 해석이 중의적이다. ① 상위문의 시점과 내포문의 시점이 동일할 수도 있고, ② 내포문이 시점이 상위문의 발화 시점보다 앞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귀납적 발견 절차에 따라 찾아낼 수 있는 사실(=귀납적 추론 결과)은, 이 방언의 융합 어미 구성체들이 사건 시점에 전환 또는 이동을 초래한다. 즉, 언제나 앞서 있는 종결어미가 이끌어 가는 사건을 항상 후행 종결어미가 근거하는 시점보다 더 앞선 시점으로 시간 해석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맥락에 따라 중의적 해석이 언제든 가능하였지만, 융합된 종결어미 구성에서는 오직 ②의 해석만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반말투의 서술법의 경우를 한 가지 사례로 살펴보면 이런 시간 해석 방식을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먹없언게, 먹었언게’(표면형 발음은 각각 [머검선게, 머거선게])
‘흐없어고나, 흐였어고나’(표면형 발음은 각각 [흐염서고나, 흐여서고나])

에서 밑줄 그은 종결어미들이 발화 시점 현재, ‘청자 경험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청자 경험 양태를 나타낸다.²⁶⁾ 이를 선행한 사건

26) ‘청자 경험 가능성’이란 용어에 대하여 어느 심사위원이 박 재연(2006: 82쪽)에서 ‘-더-’의 의미 자질 속에 “청자 지식에 대한 미지 가정이 있음”을 알려 주었고, 필자의 용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필자로서는 이런 자질이, “언어 표현의 참값 여부를 청자로서는 스스로 경험(추체험) 할 수 없다(참값 여부를 관정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된다. 반면에 화자는 이미 그 내용을 체험하였으므로 언제나 참값임이 주어질 수 있다. 대립적으

은 1차 종결어미의 영향 때문에, 발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끝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일 끝나지 않았더라면 굳이 두 번씩 종결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대신 선행한 제1차 종결어미 앞에다 양태 형태소를 집어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두 차례의 종결이, 앞의 사건을 현재 발화 사건의 이전으로 배치시켜 놓는 것으로 본다. 곧, 사건 시점에 대한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회상’이나 ‘보고’니 하는 양태 범주로 서술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앞에 일어난 사건이 ‘-없-, -엇-’에 의해 표상되고 있으므로, 그 사건들이 각각 [+착수, -종결]의 전개 사건 및 [+착수, +종결]의 완료 사건을 가리키게 된다. 종결을 표시해 주는 ‘-엇-’의 존재(‘먹엇언게, 흐엇어고나’)를 우리말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과거’라는 엉뚱한 말로 둘러대서는 안 될 것이다. <도표 4>에 관한 한, 이 방언에서 융합 구성을 이루는 종결어미들은 결코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융통성이 이 방언의 시간 표현에서도 그대로 찾아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의 지혜가 알려 주듯이, 첫술에 배가 부르는 법은 아니다. ‘융합 구성의 존재론’ 그 자체는 교착어 질서의 본질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학계 차원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3.2.2. ‘관형형 어미+형식 명사’ 구성 및 명사형 구성

두 번째 하위범주로서 이 방언에서는 관형형 어미 구성이나 명

로 말하여, ‘-느-’가 실현된다면, 그 말을 듣는 청자가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추체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썼다. 이와는 달리, ‘-더-’가 실현된다면, 결코 청자는 그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할 길이 없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개념을 녹여 손쉽게 연상을 일으켜 주도록 덜 생경한 용어 탐색이 일후 과제이다.

사형 어미 구성도 풍성하게 찾아진다.²⁷⁾ 관형형 어미 구성에서는

27) 람스테트(1954, 김 동소 1985 뒤침)의 §.52 ‘그밖의 동사 형태는 명사류이다’(verbal nouns)라는 지적과 이 기문(1972: 21)에서 “알타이 조어에서 모든 문은 명사문이었다.”는 막연한 주장이 이 절의 논의와 관련될 수 있을 듯하다. 람스테트와 포페는 동사에 접미되는 명사화 형태소(또는 ‘동명사’로도 번역함)가 인도 유럽 언어의 분사(participle)보다 더 확대된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직관적으로 이 방언에서 명사 부류를 이용하는 종결어미들이 양태 범주(더 확대하면 믿음 체계)와 관련될 것으로 믿는다.

최근 일련의 러빈·뢰퍼포트 호랍(Levin and Rappoport Hovav, 1995, 1998, 2005)에서는 현재 분사(-ing)와 과거 분사(-ed)는 각각 한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 상태에 대응되는 것으로 논의된다. 이런 사건 전개 과정을 받아들이다면, 모문의 기준시에서 현재 사건이나 임의의 현재시(=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가 시간에 대한 시간 연산자가 없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명제시라고도 말할 수 있음)가 전제되어야 한다(포페, 유 원수 1992 뒤침: 199 쪽에서는 모문의 기준시에 의존하는 상대시 ‘relative time’로 언급함). 그렇지만 상대시의 좌표계로도 화자가 임의의 사건에 부여하는 믿음을 다 다룰 수는 없다.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양태의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때 양태의 개념은 단순히 서구 언어에서 다뤄온 사고(필연·개연) 및 행위(의무·선택)의 축(이원 좌표계)을 벗어나, 의사소통의 전반적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찾아지는 전제와 함의에 관한 새로운 축(삼원 좌표계)이 도입되어야 한다. 곧, 양태를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 형식들은, 비단 화자와 세계와의 관계(<S, W>)뿐만 아니라 다시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S, W, H>)도 포함해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의 작업 가정으로서, 필자는 이들 양태 표현이 판단과 결정 과정에 간여한다고 본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판단-결정 체계에 관한 논의를 끌어와야 하겠는데, 필자는 일련의 카너먼(Kahneman 1982, 2001)을 참고할 수 있었다. 그 핵심은 우리의 판단-결정 체계가 둘로 나뉘어 작동한다는 것이다. 각각 직관적이고 원시적인 체계1과 신중하고 정교한 체계2이다. 필자는 이 중에서 확대된 양태 표현이 필시 ‘체계2’와 관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그 입증에는 필시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믿는다. 가장 손쉬운 일은 <도표 5>를 통해 귀납적으로 일반 진술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런 방향과는 거꾸로 연역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공통의 접점을 찾는 일도 중요한데, 이는 다른 학문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언어 내부에서 유사한 현상을 찾는다면, 필자는 세 개의 논향을 지닌 구문을 인허하지만, 두 개의 논향이 필수적 공범주로 나오고 사

‘-은 : -을’

(청자의 추체험 불가능 : 청자의 추체험 가능)

이 양태상의 대립을 보여 주며, 명사형 어미 구성에서는

‘-음 : -기’

(한 사건의 결과 상태 : 한 사건의 진행 과정)

가 있지만 오직 ‘-음’만이 융합 구성에 참여할 뿐이다. 명사형 어미 ‘-음’이 지닌 결과 상태의 속성 또한 양태 의미로 보면, 한 사건이 완결되었음을 가리키므로(진리값이 닫혀 있는 사건), 해당 사건에

격 의미역을 받는 제3의 논항만 내포절의 형식으로 나오는 ‘추정, 짐작’ 및 ‘희망, 기원’ 등의 동사군이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본다. 가령,

“그가 올까 싶다, 그가 왔지 싶다, 그가 올 거 같다, 그가 오는가 보다” (추정이나 짐작)

“그가 왔으면 한다, 그가 오기 바란다, 그가 오면 좋겠다, 그가 왔으면 싶다” (희망이나 기원)

등에서 모두 내포절(문장, 명사절, 조건절)에 언급된 사건 ‘그가 오다’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 지홍 1992). 이런 구성이 방언별로 구현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융합 또는 축약 구성도 가능하다. 이 방언에서는 ‘-카부다(-까 싶다), -은가 싶으다(-는가 싶다), -기 기롭다(-기 그럽다/바라다), -민 조으쿠다(-면 좋겠습니다)’ 등이 변이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필자가 살고 있는 진주 방언에서는 추정이나 짐작을 나타내는 ‘-는갑다(-는가 보다), -을겅다(-을 거 같다), -지싶다’ 등이 융합되어 있다.

한편, 영어에서는 통사적으로 조동사라는 명확한 하위 범주를 통해서 양태 모습들이 반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이나 한국어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범주로 고정되어 있기보다, 오히려 다소 몇 가지 구현 방식으로 흩어져 있다. 따라서 이런 작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들이 하나의 ‘가족끼리 닮은 점’(family resemblance, 미약한 유사성)임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단 이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런 접근이 올바른 노선 위에 있다면, 귀납화 과정이 몽골어에 속하는 언어들에 놓고서 이런 특성들을 비교하는 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하여 참값이 결과적으로 갖들게 되며, 전문 용어로 entailment (결과적으로 갖든 참값의 관계)라고 부른다.

<도표 5> 관형형 및 명사형 구성을 띤 융합 종결어미

어투 서법	서법 고유의 형태		반말투 (‘마씀’ 부착 가능)
서술법 (내림세 억양↘)	형식 명사 있음	-은/-을/-는/-던 생 이어, -을 이 라(-으리라), -을 리 어(-으려), -은/-을/-는 이 (-으니/-으리/-느니), -을 것 + 이+ 음+ 이어(-으 켜 메)	-은/-을/-는/-던 생 이라 ¹ , -은/을 거 라 ¹ , -을 거 라 ¹ (-으 켜 라 ¹) -은/-을 게 라 ¹ , -으 케 라 ¹ -은/-을/-는/-던 게 -은/-는/-던 걸 , -을 걸 (-으 꼈) -을 테 취, -을 테 주
	관형형 어미	-을+ 로다, -을+ 로고 -을+ 노라	
	명사형 어미	-음+ 이어(-으 메)	
의문법 (올림세 억양↗)	형식 명사 있음	-은/-을 것/거 거가?(의문사~ - 것/거 고?) -은/-을 거 냐(의문사~ -거니?) -은/-을 이 야?(의문사~ -이?), -을 리 야?(의문사~ -리?)	위의 어미들과 동일하며, 의문법 억양으로 나옴
	관형형 어미	-은/-을/-는/-던+ 다?(의문사~ -디?) -을+ 러냐?(의문사~ -러니?) -을+ 라? -을+ 래? 스스로 묻는 형태임 -은/-는/-던+ 가?(의문사~ -고?) -을+ 가?, -으 카 ?(의문사~ -코?)	

<도표 5>에서는 관형형 어미와 형식 명사 ‘것/거, 이/리, 생(相, 모양), 터’가 관찰된다(‘-은디, -을디’도 추가될 수 있음). 이 형식 명사

들이 모두 양태(사건 전개의 여러 측면)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후보들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터’(터전)은 사건이 일어날 공간이나 무대를 가리키고, ‘생’(相, 모양)은 추측하는 상상의 공간을 가리키며, 무색투명한 형식 명사 ‘것’(입말에서는 ‘거’로 쓰임)이 중립적인 데 반하여 ‘이/리’는 추측이나 추정 쪽을 암시해 준다. 그런데 관형형 어미가 형식 명사가 없이 직접 종결어미와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관형형 어미’으로 표시됨). 국어사에서는 이른바 ‘의문 침사’가 아무런 문법요소가 없이 직접 발화나 문장에 결합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는 의문법에서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법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결합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문법과 서술법에 모두 적용될 만한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이른바 의문 침사를 설명하는 쪽에서는 침사 앞에 있는 요소가 명사의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는 명사로 문장이 끝난다는 점에서, 명사형 어미 ‘-음’이 계사 구문으로 나오는 것(음이어)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으메’(-음이어)에서는 마지막 음절의 ‘에’에서 늘어붙어 있는 계사의 흔적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은 이런 변동을 찾아낼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기술의 방편으로 관형형 어미 뒤에 직접 종결어미가 붙는 부류들이 있다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관형형 어미와 형식 명사로 만들어진 부류와 명사형 어미 ‘-음’과 계사로 만들어진 부류에 예외가 되는 것이다.

의문법에서 괄호 ‘()’ 속에 들어 있는 ‘의문사’(wh-word)는 ‘언제, 무엇, 어디’ 따위의 의문사가 들어 있는 발화의 경우에, 종결어미들이 내림세 억양(하강 어조, ↘)을 지니고서 마지막 음절에서 ‘아’가 탈락되어 ‘이’로 발음되거나 또는 의문 침사가 ‘가?’에서 ‘고?’로 바뀌어야 함을 드러내어 준다. 이는 <도표 3>과 <도표 4>

에서도 찾아지는 동일한 현상이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보여 주는 구분과 나란한 것이고, 현재 경상도 방언에서도 반사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도표 4>의 융합 구성에서는 서법의 종류가 명령 및 감탄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도표 5>에서는 오직 서술 및 의문 서법만 관찰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행위나 행동은 현재 또는 미래의 실천(실행)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관형형 구성이 기본값으로 ‘-은/-을’ 및 ‘-은’에서 파생되어 나온 ‘-는/-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령이 실행되는 영역(늘 현재 동시 영역)과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관형형 어미 및 명사형 어미 구성이 오직 서술 및 의문 서법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3.2.3. 다른 어미로부터 전성되어 쓰이는 종결어미

이제 고유한 종결어미가 아니라, 다른 어미들로부터 특정한 맥락에 따라 마치 종결어미처럼 전성되어 쓰이는 마지막 부류를 다룰 차례이다.

<도표 6> 반말투로만 쓰이는 전성된 종결어미(일부 예시)

유래 서법	본디 내포문				본디 접속문	
	인용 형식	의무 형식	인용 형식	의도 형식	등위접속	종속접속
서술법 (내림세↘)	-나여, -다여, -라여	-라사주	-갠/-괘/-괘, -넌, -넌, -댄, -랜 -고랜, -푸댄 -으멘	-젠	-곡, -곡 말곡	-거든, -민, -은디, -는 디, -던디
의문법 (올림세↗)	X		위와 같음	위와 같음	X	

세 번째 하위범주로 접속문 및 내포문에 간여하는 형태소(본디 종결어미가 아니었음)가, 쉽게 복원될 수 있는 적정한 맥락 속에서 뒤에 나오는 후행 접속문이나 상위문이 생략되는 일이 잦게 일어남에 따라, 점차 종결어미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전성된 종결어미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방언에서는 전성된 종결어미들이 모두 반말투에서만 관찰되고, 또한 서술법 및 의문법에서만 찾아진다. 특히 서술법에서는 접속문과 내포문으로부터 연유되는 전성 종결어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의문법에서는 오직 내포문의 전성만이 관찰되며, 서술법의 형태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올림세 억양(상승 어조)로 발화된다. 내포문은 특히 인용 형식과 의도 표현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이 모두 반말투로만 쓰이기 때문에, 억양만 달리하여 서술 서법으로도 쓰이고(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서술 서법이 길게 억양을 내뻐면서 감탄 서법으로도 겸용될 수 있음), 의문 서법으로도 쓰인다. 따라서 내포문의 경우 상위문 동사가 ‘말하다’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서술법으로 지정되고, ‘묻다’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의문법으로 지정된다.

<도표 6>에서 중복됨이 없이 오직 서술법에만 들어 있는 전성 종결어미가 있다(‘-나여, -다여, -라여, -라사주’). 이들은 본디 ‘-여’가 인용동사 ‘하다’의 활용 모습인 ‘하여’에서 유래되었고, ‘-주’가 본디 ‘-라사주 된다’(‘-라야지 된다’)라는 당위성과 관련된 판단 구문(되다/안 되다)에서 나왔고, 기준을 통과한 판단 모습을 나타내어 주는 ‘되다’도 또한 대동사 ‘하다’의 활용 모습 ‘하다’처럼 교체될 수도 있다. ‘-주’가 덧붙지 않은 ‘-라사 한다’(‘-라야 한다’)도 쓰일 수 있는데, 굳이 기준점을 표시하기 위한 ‘-라사 된다’(‘-라야 된다’)로부터 교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다는 점에서, 교착어 질서에 따라 ‘-라사’에다 다시 추가적인 자질이 ‘-주’를 통하여 덧붙여진다고 볼 수 있다(그런 자질을 어떻게 나타낼지는 차후의 문제

임). 그렇지만 이들에서 생략 또는 축약된 상위문을 결코 의문 동사 ‘묻다’로 복원될 수는 없다. 만일 이들이 올림세 억양(상승 어조)으로 발화된다면, 내용을 재차 확인하려는 의문의 형식을 띤 ‘메아리 의문문’이 된다. 다시 말하여, 상대방 청자의 발화 그 자체를 재확인하려고 하여,

“당신이 말한 바가 과연 내가 메아리처럼 복사한 내용과 과연 정확히 맞는지 여부”

를 묻는 것이다. 이는 통사 구조상에서 다뤄질 의문문이 아니라 화용상의 의문일 뿐이다. 이런 메아리 의문 형식은 접속문에서 전성된 형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

보다 근원적인 물음은 비-전형적(non-canonical)이고 유표적인 종결 형태소들의 존재론에 관한 것이다.²⁸⁾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입말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잦을 개연성이 있다. 매우 성글게 보면, 명사 구성을 이용하는 부류와 생략이 굳어진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서는 오직 명사형어미 ‘-음’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서는 압도적으로 관형형어미 ‘-은, -을’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형식 명사들이 간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태 관련 동기 말고는 달리 이런 구성들이 이 방언의 종결 형식에 참여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양태 관련성의 추정에도 왜 이 방언에서는 양태 관련 표현들이 다

28) 이런 주제를 놓고서 2015년 11월 8일 일본 경도대학 세미나에서 “Non-canonical Ending Systems in Jeju Korean”(영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참여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여러 언어들에서 그리고 자신의 언어에서도 내포문과 접속문 형식이 종결 형식에 전용되는 경우가 제주 방언과 같이 존재함을 지적해 주었다. 필자로서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그런 전용 사례들이 어떤 범위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놓고서 이런 상위 질문이 공동의 모색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하게 쓰이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결정 과정에서 간여하는 개념 체계들에 대한 여러 학문의 융합 연구가 요구된다.

생략이 의무 적용되어 전성된 후자 쪽에서는, 내포문 어미들 중에서 인용 형식이 억양을 달리하여 서술법에도 쓰이고 의문법에도 쓰인다. 숫자상 인용 어미 ‘-인, -ㄴ’을 지닌 형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므로, 다만 어간 ‘ㅎ’가 의무적으로 생략된 부류보다 더 기본적인다고 봐야 할 듯하다. 인용문에서 전성된 종결어미들은 ‘관계적 함의’를 지니는 데 비하여, 접속문에서 전성된 종결어미들은 ‘대화상의 함의’를 지닌다고 서로 대조적인 모습으로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가 복원 가능성의 정도가 높고 뚜렷이 예측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인용 구문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후자는 변동 가능성이 허용되므로 그런 변동을 포착하려면 반드시 대화에서 찾아지는 담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페어클럽(2003, 김 지홍 2012 뒤침)에서 잘 지적되었듯이, 인용이 단지 남의 발언을 따오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발화되지 않은 남의 생각이나 마음을 추정하거나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합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하위범주를 확정해야 하고, 개별 형태들의 독자적인 의미자질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측면이 통사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지, 아니면 담화나 화용 쪽으로 미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마무리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들을 놓고서 광범위한 기술

에 근거하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 방언의 내적 대립 체계를 포착하여 몇 개의 도표로 제시하였다. 이 글의 마무리는 여기서 제시된 도표들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이런 체계가 결코 필자 혼자만의 시도로 완벽해질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왜곡되게 기술되어 온 이 방언의 실상을 누군가가 올바르게 회복해 주려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원리로 기술·설명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면서 토론의 마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필자는 ‘후핵성’을 구현하는 교착어 질서에 따라 대립 요소들의 이분 또는 유무 대립에 유의하면서 일정한 틀(계층성)을 확정해 놓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대립을 찾는 일은 결코 기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접 언어들에 대한 논의들을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후보들을 마련한 다음에, 약한 가능성의 후보부터 지워 나가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지금 이 방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주 급격히 변동하면서 차츰 표준어로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이 방언을 모어로 삼고 있는 화자들은, 심층의 문법 체계를 정확히 구사하고 구현하고 있음을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어 방언에 대한 기술과 설명으로서 김 지홍(2014b)에서 시도되어 있다.

우리말의 기술과 설명은 광복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더러 부족한 구석들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특히 접속문과 내포문을 형태만을 따져서 구분을 흐려놓는 경우가 대표적이다(형태에 몰입한 오류임). 다행스럽게도 표준어와는 달리 이 방언의 복합 구문들은 그런 혼돈을 석연히 구분해 주는 뚜렷한 형태 대립을 보여 준다. 이 방언의 복합 구문들에 대한 연구는 장차 우리말의 혼란된 기술을 고쳐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

가, 종결어미를 만들어 주는 범주들에 대한 논의는 답보(또는 퇴보) 상태에 머무는 듯한 ‘알타이 어족’의 논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열어 줄 수 있다. 형태소들의 유사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층위의 범주들에 대하여 주목할 경우에(어떤 범주들이 왜 종결 과정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상위 연구가 됨) 또다른 측면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만일 이 글에서 제시된 도표들이 이 방언의 실상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다시 이 틀들은 가장 먼저 한국어의 다른 방언 및 옛 자료들에도 적용되어 강건성을 시험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어에 공통되게 관류하는 매개인자들이 무엇이고, 개별화에 간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놓고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단계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밝은 눈을 지니고서 개별 방언에 대한 탐색과 논의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 강 정희. 1994. 「제주 방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연구」, 어문연구 5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쪽~31쪽.
- 고 동호·정 승철·송 상조·고 영진·김 지홍·오 창명·문 순덕. 2014.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 고 영근. 2007. 『한국어의 시제·서법·동작상』(보정판). 대학사.
- 고 영진. 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275. 한글학회. 77쪽~106쪽.
- 고 영진. 200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한글 280. 한글학회. 101쪽~128쪽.
- 김 수태. 2005. 「‘-느-’와 종결어미의 융합」, 우리말 연구 16. 우리말학회. 27쪽~51쪽.
- 김 완진. 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 지홍. 1982.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 지홍. 1992a. 「{-겠-}에 대응하는 {-으크-}에 대하여: 특히 분석 오류의 시정과 분포 확립을 중심으로 하여」, 현 용준 박사 회갑기념 제주도 언어 민속 논총. 도서출판 제주문화. 33쪽~98쪽.
- 김 지홍. 1992b. 「국어 부사형 어미 구문과 논항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 지홍. 2001.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백록 어문 17.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7쪽~35쪽.
- 김 지홍. 2010. 『국어 통사·의미론의 몇 측면: 논항구조 접근』. 도서출판 경진.
- 김 지홍. 2014a. 「제주 방언 통사 연구에서의 현황과 과제」, 고 동호 외 6인(2014)에 있음. 178쪽~314쪽.
- 김 지홍. 2014b. 『제주 방언의 통사 기술과 설명: 기본구문의 기능범주 분석』. 도서출판 경진.
- 김 지홍. 2015a. 「Non-canonical Ending Systems in Jeju Korean」, 원고본. (2015년 11월 8일, 일본 경도대 문학부 종합연구 2호관.)
- 김 지홍. 2015b. 『언어 산출 과정에 대한 학제적 접근』. 도서출판 경진.
- 남 기심. 1982. 「국어의 공식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배달말 7. 배달말학회. 1쪽~10쪽. (남 기심. 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에 재수록됨.)
- 문 숙영. 2006. 「제주 방언의 '-엄시-'의 범주와 관련된 몇 문제」, 형태론 8-2. 도서출판 박이정. 293쪽~316쪽.
- 박 재연. 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송 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안 명철. 1990. 「국어의 융합 현상」,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12쪽~137쪽.
- 양 창용·양 세정. 2013. 『소멸 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 [제주방언] 보전 방안』. 제주학 연구 4. 제주발전연구원.
- 우 창현. 2003. 『상 해석의 이론과 실제: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 기갑. 2008. 「양상의 유형론」, 『언어 유형론』(김 원필 외 18인). 월인.

165쪽~200쪽.

- 이 승욱. 1997. 『국어 형태사 연구』. 태학사.
- 이 승녕. 1957.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1978 재판). 탑출판사.
- 이 지양. 1998. 『국어의 융합 현상』. 태학사.
- 이 효상. 2006. 「제주 방언의 ‘-엄시-’에 대하여: 상 표지인가, 시제 표지인가?」, 형태론 8-1. 도서출판 박이정. 129쪽~138쪽.
- 임 흥빈. 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기능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일지사. 168쪽~192쪽. (‘임 흥빈. 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에 재수록됨.)
- 임 흥빈. 1984. 「청자 대우법 상의 ‘해’체와 ‘해라’체」, 소당 천 시권 박사 회갑기념 국어학 논총.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281쪽~316쪽. (‘임 흥빈. 1998. 『국어 문법의 심층 1』. 태학사’에 재수록됨.)
- 정 승철. 1998. 「제주 방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995쪽~984쪽.
- 최 현배. 1929/1971. 『우리말본』(제4개정판). 정음사.
- 허 경행. 2010. 『한국어 복합 종결어미』. 박문사.
- 허 용. 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현 평효.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 평효·김 홍식·강 근보. 1974. 「제주도 방언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 6. 제주대학교. 15쪽~34쪽.
- 홍 윤표. 1994. 『근대 국어 연구 1』. 태학사.
- 홍 종립. 1991.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 종립. 2001. 「제주 방언 연결어미 ‘-ㄴ’, ‘-ㅇ’에 대하여」, 국어학 38. 국어학회. 271쪽~354쪽.
- Abney, S. 1988. 「The English Noun Phrase in its Sentential Aspect」, MIT 박사논문.
- Aikhenvald, A. Y. 2004. *Evidenti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P. and S. Levinson. 1978/1987 증보판.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 and J. Nichols eds. 1986.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Clark, H. 1999. (김 지홍 2009 뒤침)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 도서출판 경진.
- Davies, B., M. Haugh and A. Marrison eds. 2013. *Situated Politeness*. Continuum.
- Fairclough, N. 2001 증보판. (김 지홍 2011 뒤침) 『언어와 권력』. 도서출판 경진.
- Fairclough, N. 2003. (김 지홍 2012 뒤침) 『담화 분석 방법: 사회 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도서출판 경진.
- Goffman, E. 1967. (진 수미 2013 뒤침) 『상호작용 의례: 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 아카넷.
- Grice,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dman, D. and Laura Macchi eds. 2003. *Think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Reason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John Wiley and Sons.
- Hogeweg, L, H. de Hoop and A. Malchukov eds. 2009. *Cross-linguistic Semantics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John Benjamins.
- Kahneman, D., P. Slovic and A. Tversky. 1982. (이 영애 2001 뒤침)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추단법과 편향』. 아카넷.
- Kahneman, D. 2011. (이 진원 2012 뒤침)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김영사.
- Kintsch, W. 1998. (김 지홍 · 문 선모 2010 뒤침) 『이해: 인지 패러다임 I ~ II』. 도서출판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 총서, 서양편 292~293.)
- Leiss, E. and W. Abraham eds. 2014. *Modes of Modality: Modality, Typology, and Universal Grammar*. John Benjamins.
- Levelt, W. 1989. (김 지홍 2008 뒤침) 『말하기: 그 의도에서 조음까지 I ~ II』. 도서출판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 총서, 서양편 213 ~214.)
- Levin, B. and M. Rappoport Hovav. 1999. 「Two Structures for Compositionally Derived Events」, *SALT 9*, Cornell Linguistics Circle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 Levin, B. and M. Rappoport Hovav. 2005. *Argument Realization*.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Linguistic Politeness Research Group ed. 2011. *Discursive Approaches to Politeness*. De Gruyter Mouton.
- Mushin, I. 2001. *Evidentiality and Epistemological Stance: Narrative Retelling*. John Benjamins.
- Nuckolls, J. and L. Michael eds. 2014. *Evidentiality in Interaction*. John Benjamins.
- Rappoport Hovav, M., E. Doron and I. Sichel eds. 2010. *Lexical Semantics, Syntax, and Event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Rappoport Hovav, M. and B. Levin. 1998. 「Building verb meanings」, in M. Butt and W. Geuder eds. *The Projections of Arguments: Lexical and Compositional Factors*. CSLI Publications at Stanford University.
- Poppe, N. 1954. (유 원수 1992 뒤침) 『몽골 문어 문법』. 민음사.
- Poppe, N. 1960. *Buriat Grammar*. Indiana University. (Uralic & Altaic Series vol. 2.)
- Prior, A. N. 1957. *Time and Modality* (옥스퍼드 대학교 존 로크 기념 강연). Clarendon Press.
- Ramstedt, G. 1952. (김 동소 1985 뒤침) 『알타이어 형태론 개설』. 민음사.
- Skribnik, E. 2003. 「Buryat」, J. Jahhunen ed. *The Mongolic Languages*. Routledge.
- Watts, R. 2003. *Polit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ts, R., S. Ide and K. Ehlich eds. 1992. *Politeness in Language: Studies in its History, Theory and Practice*. Mouton de Gruyter.

김 지홍

주소: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소속·직위: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누리편지: jhongkim@gnu.ac.kr

<Abstract>

On Prefinal and Final Ending Systems in Jeju Korean

Kim Jee-hong

Due to the simple fact that Jeju Korean has been used over several hundred years in Jeju island, detached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from the mainland Korea, it is assumed that it has fully developed her ending systems intact so that some precise description with rigor criteria would reveal apparently complex but inherently simple ending systems in a consistent way. A clue can be found, if Addressee Honorific Markers are properly paid attention, which should be divided into four compartments with such features as publicity and formality. Each shell of Jeju Honorific systems is filled with typical morpheme instances, as shown in figures 1 to 2 (focusing on plain registers for the simplicity sake). Tense -aspect markers also extend themselves to evidential modality, when they are duplicated just after Honorific suffix in an amalgamated way. The last four figures from 3 to 6 say how the complex ending systems be part way into canonical and non-canonical ending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latter fused parts be, it is claimed, further splitted into Truncated Non-final Endings and Nominal Construction Endings because they have extended modality functions.

* **Key words:** Jeju Korean, prefinal and final ending systems, register with features of formality and publicity, plain register, non-canonical ending systems, truncation and duplication, extended modality.

<논문 받은 날: 2016. 7. 4.(1차), 8. 31.(수정본)>

<심사한 날: 2016. 7. 19.~8. 16.>

<실기로 한 날: 2016. 8. 17.>